No.1 시니어 전문 케어
센터메디컬그룹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

기독일보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FRIDAY, March 21 2025 Vol. 953

아픔으로 생명의 종소리를 더 멀리 알리는 교회

주님세운교회 박성규 원로목사 추대 신용환 담임목사 취임

주님세운교회가 '박성규 원로 목사 추대식 및 신용환 담임목사 취임식'을 3월 16일(주일) 오후 4시에 거행했다. 이날 행사는 노영호 목사(KPCA 서노회 노회장/새한교회)의 인도로 1부 예배, 2부 원로목사 추대식, 3부 담임 목사 취임식 순으로 진행되었다.

제1부 예배에서 김인식 목사(KPCA전총회장/ 웨스트힐교회 원로목사)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인식 목사는 원로목사와 후임 목사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라며, 주님세운교회가 더 큰 은혜의 20년을 맞이하기 위해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설교를 이끌었다.



주님세운교회가'박성규 원로 목사 추대식 및 신용환 담임목사 취임식'을 거행했다. ⓒ주님세운교회

그는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이다. 때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 왜 우리를 미국에 두셨는지, 지금 어느 때를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는지 알고 달려가야 한다"며, 하나님께서 한국에 두신 역사적 사명에 관해 설명했다.

그는 마지막 때를 위한 징조로, 여러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꼽는다며, 1880년대 이후 이 마지막 때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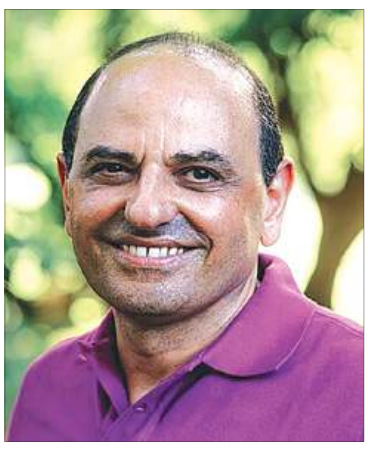
"하나님께서는 한인 선교사에게 이 사실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다.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때에 맞는 양식을 전하는 자리로 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제2부에서는 '주님세운교회 은혜의 20년 영상'에 이어, 손흥수 장로가 추대사를 전했다. 손흥수 장로는, "숱한 고난과 힘든 상황에도 담대한 믿음과 성숙된 인격으로 성도들을 한결같이 목양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할 뿐이다. 시대에 대한 분별력과 통찰력으로 잠자고 있는 성도들을 깨우시고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도록 영적인 충격을 주셨다"고 말했다.

토마스 맹, 주디 한 기자

➔ 2면에서 계속

문화적 기독교: 믿음과 헌신 사이의 갈림길



J.John 목사.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J 존의 기고글인 '문화적 기독교의 유혹적인 매력'(The seductive allure of Cultural Christianity)을 13일 게재했다. J 존은 목사, 연사, 방송인,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나는 전도자로서 세상을 주시하는 것이 내 역할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을 전하려면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상은 변하고, 때때로 놀라운 방식으로 변화한다. 최근 1~2년 동안 나는 새로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을 감지했다. 바로 "문화적 기독교"라는 개념이다.

문화적 기독교를 지닌 사람들은 기독교와 그 가치를 인정하고 동조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는 아니다. 이들은 기독교 문화를 좋아하고, 기독교의 가치를 칭찬하며, 심지어 교회에도 출석하지만, 부활하신 살아 계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신뢰하고 기도하는 삶에는 나아가지 않는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은 교회 안에서 늘 존재했던 '명목상의 기독교'와 비슷하다. 그러나 오늘날 문화적 기독교는 하나의 분명한 입장으로 자리 잡았다. 심지어 무신론의 대표적인 인물로 여겨졌던 리처드 도킨스(Richard Dawkins) 조차도 자신을 "문화적 기독교인" 이라고 선언할 정도다.

문화적 기독교가 등장하는 이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 나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문화가 서구 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가치들—진실, 관용, 친절, 온유, 용서, 결혼의 신실함, 성별과 재산에 관계없는 인간의 존엄성—이 단순히 인간 본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실 기독교 신앙에서 기원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가치들이 결코 "영국적 가치" 같은 민족주의적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다. 만약 영국에서 이러한 가치가 오랫동안 유지되었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오랜 세월 동안 이 땅에서 가르쳐졌기 때문이다. 사실, 기독교는 세계에서 가장 국경을 초월한(global) 종교로서 민족과 인종을 구별하지 않는다. 오늘날 영국에서도 가장 활발한 교회들 중 상당수는 아프리카, 카리브해, 중국, 이란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이끄는 교회들이다.

문화적 기독교의 긍정적인 면

문화적 기독교에는 긍정적인 요소도 있다. 성경과 복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신약성경은 믿음이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가르친다(마태복음 7:16, 누가복음 6:43-45). 문화적 기독교는 복음이 선한 것이며,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기독교 신앙에 대한 새로운 수용 분위기: 한때 "신무신론(New Atheism)" 의 시대에는 기독교 신앙을 밝히는 것이 조롱과 적개심을 불러일으켰지만, 이제는 오히려 흥미를 끌거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신앙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알고 → 기독교인을 알고 → 그리스도를 알고 → 그리스도를 믿는 과정을 거친다. 문화적 기독교는 진정한 신앙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가능성이 있다. 최승연 기자

➔ 3면에서 계속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미국↔한국₩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상법/부동산법 ▪뱅크럽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대면·전화상담 예약 213.820.3704

태양광, 솔라!!
2025년 대박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연방ITC: 30% 이상
✓솔라 설비의 감가상각비 중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2024년 설치 시)
✓원금 회수기간: 3년~6년
✓전기로 절감: 최대 90%
BTS SOLAR DESIGN 213.500.8000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미국교수와 한국교수의 콜라보!
신학/목회학 석사 100% 온라인 수업
목회학 박사(캠퍼스 인텐시브)

MA in Christian Ministry & Leadership : 총 49학점
MDiv (목회학 석사과정) : 총 79학점
- 100% 온라인 수업
- 연간 3학기제 운영: 봄학기, 여름학기, 가을학기
- 학기별 16주 운영
- 학기당 3학점 두 과목 이수 가능 (연간 18학점 수강 가능함, 사역실습은 별도)
- 매주(총16주간) 미국인 담당교수의 동영상 강의 시청
- 한국인 교수의 실시간 온라인 수업
- 한국인 교수의 수업 내용(수업 주제 리뷰 + 발표 + 퀴즈풀이 + Q&A)


Ed Stetzer, Ph.D.
학장 인사말
탈봇의 교수진은 보수적 복음주의적 신학 입장에서 신학도들과 사역자들을 양성해 왔습니다. 탈봇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양성하고,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세상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탈봇에서 신학교육을 받아야 하는 7가지 이유
1. ATS/WSCUC 정회원교로서 기독교 정신과 학문적 수준을 갖춘 최고 수준의 신학대학원입니다.
2. 성경의 무오성을 주장하는 보수적 복음주의 신학의 선두주자입니다.
3. 교수진은 보수적 복음주의 신학을 고수하며, 저명한 학위와 학술 작품을 발표한 학자들입니다.
4. 바이올라 대학교에 소속되어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며 재정적으로 안정된 신학대학원입니다.
5. 신학 교육의 혁신을 통해 영성형성을 토대로 하는 전인적 교육을 실시합니다.
6. 초교파 신학교로서 성경강해를 바탕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 제자도에 집중합니다.
7. 신학지식 뿐 아니라 인격과 영성, 사역을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배움의 장입니다.

모집 요강
(미국) 913 202 4084, (한국) 010 3024 5958 korean.masters@biola.edu biola.edu/talbot-korean

교수소개 Faculty * 아래 교수진은 석사 과정 강의자 중심이며 탈봇에는 그 외에 더 많은 교수진이 있음


Minsoo Sim, Ph.D/ Th.D
Professor of Christian Education & Practical Theology, Director


Eddie Byun, D.Min.
Associate Professor of Christian Ministry


Benjamin C. Shin, D.Min.
Associate Professor of Christian Ministry and Leadership


Clinton E. Arnold, Ph.D.
Research Professor of New Testament


John Coe, Ph.D.
Professor of Spiritual Theology


Sunny Song, Psy.D.
Associate Professor of Christian Ministry and Leadership


Daniel E. Kim, Ph.D.
Associate Professor of Old Testament and Semitics


Scott Rae, Ph.D.
Professor of Philosophy and Christian Ethics


Gary Manning, Ph.D
Professor of New Testament Language and Literature


Joanne Jung, Ph.D.
Professor of Biblical and Theological Studies


Ashish J. Naidu, Ph.D.
Professor of Theology


Mark Saucy, Ph.D.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Doug Geringer
Associate Professor of New Testament Language and Literature


Kevin Van Lant, Ph.D.
Associate Professor of Christian Ministry and Leadership


Rob Price, Ph.D.
Associate Professor of Theology


Kenneth C. Way, Ph.D
Professor of Old Testament and Semitics


Ryan S. Peterson, Ph.D.
Associate Professor of Systematic Theolog


R. Scott Smith, Ph.D.
Professor of Christian Apologetics


Kyle Strobel, Ph.D.
Associate Professor of Spiritual Theology


Uche Anizor, Ph.D.
Professor of Theology


Karin Stetina, Ph.D.
Professor of Biblical and Theological Studies


Jeannine Hanger, Ph.D.
Associate Professor of New Testament


Dominick Hernández, Ph.D.
Associate Professor of Old Testament and Semitics


J P Moreland
Distinguished Professor of Philosophy

“옛 어른들, 마을이 고난에 처했을 때 잔치를 벌였다”

➔1면 기사 〈아픔으로 생명의...〉에 이어서 노영호 목사가 ‘박성규 목사가 주님세운교회 원로목사가 된 것’을 선포하고, 권오성 장로가 원로 목사 추대패 전달, 노영호 목사가 공로 목사패 전달, 이어 송정명 목사(미주성시화운동본부 공동대표)와 이상명 목사(CPU 총장)가 축사하고 임명패를 전달했다.

송정명 목사는, “미국 정부나 주정부가 성경에 반하는 정책을 제안하고 법령을 제정하려 할 때, 저희가 여러 목사님에게 서명 요청을 드린다. 그럴 때마다 앞장서서 서명운동에 박차를 가하는 분이 박성규 목사님이셨고, 주님세운교회가 앞장서 주셨다. 은퇴 후 사역을 계속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었다. 타코마에 올라가셔서 목회자를 양성하시고 성시화 운동에 불을 붙이겠다고 다짐하셨다”라고 축사하고 ‘미주성시화운동본부 타코마 지역 대표회장’ 임명패를 전달했다.

이상명 총장(CPU 총장)은, “모세의 리더십을 승계한 여호수아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아름다운 리더십 계승의 이야기로 회자되고 있다. 주님세운교회 지난 20년은 제1대 담임 박성규 목사님의 수고와 헌신으로 기경한 역사이다. 박 목사님이 보여주신 리더십과 헌신은 미주 한인 교회의 역사와는 분리될 수가 없다”고 축사하고 공로패를 수여했다.



신용환 목사가 담임 목사 취임을 위해 서약을 하고 있다. ⓒ기독일보

박성규 목사, 선교센터 설립 및 후진 양성에 힘쓸 것

이어서 박성규 목사가 인사말을 나눴다. “지난 20년 동안 이민목회를 하면서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을 붙들고 성도들을 지켰고, 성도들 또한 저를 지켰다. 서명 운동으로 진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타코마에 가서 선교센터를 세우고 후진들을 양성하며 남은 세월을 살아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한다.”

3부 담임목사 취임식

3부 순서로, 담임목사 취임식이 진행되었다. 축사 및 권면을 맡은 송병주 목사(선한청지기교회)는 “오늘 이 날이 잔치였으면 좋겠다. 옛날 사회적 책임을 가졌던 마을의 어른들은 가뭄이 들고 역병이 돌고 사람들이 전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고통스러울 때 잔치를 벌였다. 책임감을 지닌 대인들은, 동네의 굶는 아이들이 외롭지 않도록,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혼자 밥 먹지 않도록 잔치를 벌였다”며,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주님세운교회가 잔치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한다. 외로운 사람들, 혼자 밥 먹는 사람들, 남들에게 말 못 할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이곳에서 베풀어 주는 식탁을 나누며 웃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말씀의 잔치가 열리고 또 사랑의 잔치가 가득한 주님세운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고 말했다.

“우리를 둘러싼 여러 정황은 잔치를 벌일 상황이 아니다.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은 슬픔 대신 찬송의 옷을 입으라고 하셨다. 그리고 한이 될 만한 현실을 흥이 되는 춤사위로 바꾸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신용환 목사님과 사모님은 한이 많은데, 그 한을 흥으로 풀어낼 줄 알아서 더 좋다. 이문재 작가는 ‘종소리를 더 멀리 보내기 위하여 종이 더 아파야 한다’고 말한다. 주님 세운 교회가 아픔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종소리를 더 멀리 알리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

“도종환 님이 이런 말을 했다. ‘깊은 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물고기처럼 험한 기슭에 꽃 피우길 무서워하지 않는 꽃처럼 길 떠나면 산맥 앞에서도 날개짓 멈추지 않는 새들처럼 그대 절망케 한 것들을 두려워하지만은 않기로.’ 우리를 절망케 했던 수많은 것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호연하게, 멋지게 나아가는 두 분 되시기를 바란다.”

송병주 목사는 마지막으로, “돌끼리 부딪히면 아주 날카로운 파편들이 생긴다. 돌만 있으면, 부딪혀 깨져 칼처럼 예리한 파편이 되지만, 그 가운데 물이 흐르면 둥글둥글한 차돌이 된다”며, “성도님들이 흐르는 물이 되어 주시기 바란다”고 권면했다.

신용환 목사, “박성규 목사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달려가겠다”

신용환 목사는 “고등학교 때 목회 소명을 받고 빌립보서 1장 21절 그 말씀이 저의 말씀이 되었다. 박 목사님을 이어서 교회를 잘 섬기겠다. 목사님과 잠시 떨어지는 시간이 너무나도 아쉽고, 박 목사님의 손을 잡는데 뭉클 눈물이 났다. 목사님의 눈물과 아픔이 저의 눈물이었다. 찬송가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남김없이 후회없이 박 목사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달려가겠다”고 인사했다.

정시우 목사(PCUSA 한인교회협의회 전총회장)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이날 행사에는 미주복음방송 이영선 목사, OC 교협 회장 민경엽 목사, 남가주 교협 샘신 목사, 남가주 교협 증경회장 최학량 목사를 비롯해, 임윤택 박사, 신춘식 교수, 이종용 목사, 여러 언론사가 자리에 함께했다.

신용환 목사는 고신대학교 기독교교육과를 졸업하고, 고려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풀러신학교 목회학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며, 대구 동일교회, 부산 거제교회, 선한청지기 교회, 나성한미교회에서 시무했다. 가족에는 신현아 사모와 두 자녀를 두었다.

주님세운교회 1대 담임목사인 박성규 목사는 목회사역 외에도 미주장로회 신학대학 이사장과 해외한인장로회(KAPC) 제42회 총회장, LA성시화운동본부 공동회장으로 섬겼으며, 타코마 지역에서 목회자 양성 및 성시화운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가족에는 박의숙 사모와 세 자녀를 두었다.

동양선교교회, VBS 프로그램 지원 강습회

응모기간 3/20-4/26 소규모 한인교회 VBS 지원

동양선교교회(김지훈 목사)가 한인 교회학교를 돕기 위해 히즈쇼(대표 백종호)와 협력하여 특별한 지원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여름성경학교(VBS) 강습회 및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며, 한인 교회학교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독교 콘텐츠 기업 히즈쇼는 교회학교를 위한 재미있고 체계적인 VBS 프로그램을 개발해 오고 있다. 교회들은 히즈쇼의 VBS 프로그램을 활용하며 성경의 메시지를 보다 생동감 있고 재미있게 가르치고 있다.

올해는 특별히 동양선교교회와 히즈쇼가 협력하여 한인 교회들의 필요를 반영한 영어 버전 히즈쇼 VBS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이를 통해 한인 교회학교에서도 보다 효과적으로 VBS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돕고, 본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약 $200 상당의 디렉터 KIT을(2GB 디지털콘텐츠_찬양율동, VBS진행가이드, 디자인자료 등)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한인 교회들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특히 소규모 교회를 위한 맞춤형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체적으로 VBS를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작은 교회들이 보다 쉽게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이번 프로젝트의 지원 대상은 아이들이 15~20명 이하이고, 전담 교역자가 없거나 교사 수가 4명 미만인 소규모 교회들이다.



지난해 동양선교교회에서 히즈쇼 공연이 개최됐다. ⓒ히즈쇼

특히, 기존의 VBS 프로그램은 많은 교사와 인력이 필요하지만, 이번에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적은 교사(3~4명)만으로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번 강습회는 히즈쇼와 동양선교교회가 함께하는 프로젝트로, 단순한 프로그램 제공을 넘어 더 많은 교회들이 연합해 다음 세대를 신앙 안에서 성장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동양선교교회는 설명했다. 참여하는 교회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규모 교회들이 VBS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공동체로 자리잡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교회들은 동양선교교회에 공지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한 후, **4월 26일(토) 오후 2시** 동양선교교회 본당에서 진행되는 VBS 강습회 및 프로그램 전달식에 참석하면 된다. 거리가 멀어 현장 참석이 어려운 교회들은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동양선교교회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한인 교회학교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선 기자

응모기간: 3. 20-4. 26
행사 일시: 4/26(토) 오후 2시
응모방법: 동양선교교회 홈페이지 (https://omc.org/) 신청 - 현장(동양선교교회 본당) OR 유투브 온라인 참여 - VBS프로그램 KIT 〈2GB 디지털다운로드 콘텐츠 무료 제공〉
전화번호: (323) 466-1234
QR링크 추가 〈온라인 신청 링크〉 https://docs.google.com/forms/



어떻게 참가할까요?

개인 월드쉐어USA로 사순절 나눔의 금식에 참가 통보 (가능한 미리 공지 및 통보 해주시면 사순절 기간을 더 잘 보낼 수 있습니다.)하시고, 사순절 금식 선교비를 월드쉐어USA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교회 나눔의 금식 참가의사를 월드쉐어USA에 알려 주시고, 성도들에게 참가를 권면하시고 성도들의 금식비 선교비를 월드쉐어 USA로 전달하십니다.

월드쉐어 USA 아이티, 수리남, 도미니카의 극빈지역 아동들과 고아원 아동들의 사순절 기간에 양육 프로그램과 영혼을 위한 빵을 나누는 SBS (Sharing Bread for Soul)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2025 사순절 나눔의 금식 준비위원회



민경엽 목사 준비위원장 | 박세헌 목사 부 준비위원장 | 김영일 목사 준비위원 | 안신기 목사 준비위원 | 양경선 목사 준비위원 | 최국현 목사 준비위원



이인규 목사 준비위원 | 써니김 목사 준비위원 | 김은목 목사 준비위원 | 진건호 목사 준비위원 | 양국민 목사 준비위원 | 김정호 목사 준비위원

Sharing Bread for Soul World ShareUSA
후원문의 (323)578-7933 강태광 목사
3123 W. 8th St. #206, Los Angeles, CA 90005

"교회 형편, 잘 살피고 협력하는 성도들 되길"

남가주그리심교회 이전 예배

남가주그리심교회(한석호 목사)가 이전 감사예배를 16일 오후 5시에 드렸다.

한석호 목사는 "이전 교회 장소가 계약이 만료되었고 장로님의 사모님이 여기를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좋은 조건으로 들어오게 되어 감사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행복한 교회'(요한복음 2:1-10)란 제목으로 설교를 한 안병권 목사(가나교회)는 "오늘 본문은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 시건은 남가주그리심교회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는지 비결을 보여주고 있다"라면서 "행복한 교회가 되려면 먼저 성도들 자신이 행복해야 한다. 행복한 성도가 되려면 세 가지 명령을 생각하기를 원한다. '빠삐따', 이는 빠지지 말자, 삐지지 말자, 따지지 말자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배를 빠지지 말아야 한다. 예배를 빠지면 신앙이 약해지고, 교회와 교우들의 분위기도 영향을 받는다. 예배에 꾸준히 참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성도 개인의 믿음을 강화하고, 교회의 분위기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라고 했다. 그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알게 된 후, 이를 예수님께 전하며 상황을 살폈던 것처럼, 성도들도 교회의 형편을 잘 살피고 함께 협력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남가주그리심교회가 이전 감사예배를 드렸다. ⓒ기독일보

이어 "성도들은 삐지지 말아야 한다. 사소한 일에 상처를 받거나 불평하는 모습을 경계해야 한다. 포도주 기적 사건에서 하인들의 순종이 기적의 비밀을 아는 유일한 사람들이 되었고, 순종했기 때문에 기적의 동반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했다.

또 안 목사는 "성도들은 따지지 말아야 한다. 잔치를 주관한 연회장이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불평하거나 따지지 않고 오히려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서로 따지고 불평하는 문화가 교회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라며 "감사와 찬양으로 서로를 격려하면, 교회가 행복한 장소가 될 것이다. 갈등을 피하고 평화로운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빠지지 않고, 삐지지 않으며, 따지지 않는 곳이 될 때, 성도들이 더욱 행복한 교회를 경험할 수 있다. 행복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불신자들이 많다. 그렇기에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날 예배는 인도에 한석호 목사, 찬양에 조성우 목사(남가주성결교회), 대표기도에 강래성 목사(에덴개혁장로교회), 특송에 코람데오중창단, 설교, 축사에 김영찬 목사(효사랑선교회), 축도에 최태규 목사(양문교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토마스 맹 기자

그리심 교회 주소: 7342 Orangethorpe A211 Buena Park

➔ 1면 〈문화적 기독교..〉에 이어서

문화적 기독교의 한계

그러나 문화적 기독교는 여전히 불완전하고 답답한 신앙 형태이다. 결국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다. 하나의 체계(system)를 신뢰하는 것이지, 구원자(Savior)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만, 실제로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 신앙이 자기 편한 대로 골라서 믿는 "선택형 신앙(Pick and Mix Faith)"이 된다.

진정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순종하는 헌신적인 관계이다. 그러나 문화적 기독교에는 이러한 헌신과 순종이 결여되어 있다. 게다가, 문화적 기독교는 진정한 기쁨이 없는 신앙이며, 삶에서 도전도 없고, 죽음 앞에서도 위로를 주지 못하는 신앙이다.

예수님의 경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7:21-23에서 다음과 같이 무서운 경고를 하셨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할 것이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 때에 나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마태복음 7:21-23, 새번역)

이 말씀은 겉으로는 신앙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이다.

문화적 기독교인을 위한 도전

그러나 문화적 기독교는 전도의 기회이기도 하다. 이들은 확신은 있지만, 아직 헌신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우리의 친구는 되었지만, 가족은 되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레스토랑 밖에서 메뉴를 바라보고 있지만,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는다. 그들은 수영장 주변을 서성이고 있지만, 물에 뛰어들지는 않는다. 그들은 믿음의 문 앞에 서 있지만, 그 문을 열지는 않는다.

우리는 이들에게 예배 모임, 성경 공부, 참된 신앙에 대한 대화로 초대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문화적 기독교에서 벗어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 이를 통해 문화적 기독교인은 헌신된 기독교인이 되길 소망한다.

미주복음방송, 이튼 화재 피해 구호금 전달

나눔온 프로젝트로 모금된 총 17만 5천 달러 중 5만 달러



미주복음방송이 LA 산불 피해 구호금을 구호단체에 전달했다. ⓒ기독일보

미주복음방송(사장 이영선 목사)은 3월 18일 오전 11시, 패서디나 커뮤니티 재단(Pasadena Community Foundation, PCF)을 방문하여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금 50,000달러를 전달했다. 이번 기부금은 최근 이튼 화재로 피해를 입은 알타데나 및 패서디나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PCF가 설립한 '이튼 화재 구호 및 복구 기금(Eaton Fire Relief & Recovery Fund)'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기부금은 미주복음방송이 주관한 '2025 나눔On 프로젝트'를 통해 모금된 총 175,000달러 중 일부로, 산불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 주민들의 재정적 지원을 위해 할당되었다. 미주복음방송의 이영선 사장은 직접 PCF를 방문하여 제니퍼 드볼(Jennifer DeVoll) CEO에게 기부금을 전달하며 "산불로 피해를 입은 많은 가정과 이웃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기부금이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희망과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PCF는 패서디나, 알타데나, 시에라 마드레 지역에서 7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비영리 단체로, 이튼 화재 피해 지역을 위해 지금까지 약 190만 달러의 기금을 모금했다.

PCF는 피해 복구 지원을 단기, 중기, 장기 세 단계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도 많은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단기적으로는 신뢰할 수 있는 NGO 및 종교 기반 커뮤니티와 협력하여 긴급 구호를 제공하고, 중기적으로는 임시 주거 지원, 사례 관리, 보육 및 정신 건강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알타데나 지역의 주택 재건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PCF의 CEO 제니퍼 드볼은 "한인 비영리기관 중 이렇게 후원금을 전달한 곳은 미주복음방송이 최초이다. 후원에 함께해 주신 많은 한인교회들과 성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PCF는 기부자들의 신뢰에 부응하여 기금을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전했다.

또한 미주복음방송은 3월 21일 9금) 오전 11시에 미주복음방송 공개홀에서 '2025 나눔On 프로젝트 지원금 수여식'을 개최하며, 기타 후원처 및 단체들에 지원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토마스 맹 기자



제15회 커피브레이크 국제 컨퍼런스 열린다



제15회 커피브레이크 컨퍼런스가 은혜한인교회에서 '성령의 새로운 시작'을 주제로 열린다.

제15회 커피브레이크 컨퍼런스가 6월 26일(목)부터 28일(토)까지 은혜한인교회에서 '성령의 새로운 시작'을 주제로 열린다. 컨퍼런스 조기등록마감은 3월 31일이며 등록마감은 5월 17일이다.

커피브레이크는 1970년대 앨빈 밴더그리엔드(Alvin J. Vander-Griend) 목사와 니바 이븐하우스(Neva Evenhouse) 집사가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던 중에 아이들의 스토리 아워가 끝날 때 까지 밖에서 기다리는 어머니들을 상대로 "Let's Have a Coffee Break" 하며 여성들의 위한 성경공부로 시작되었다.

영혼구원과 전도를 목적으로 시작된 커피브레이크는 믿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과 사랑을 전하며 교파와 교단을 초월하여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20여개국 30여개 교단에서 제자양육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1995년 제1회 컨퍼런스가 개최되었고, 미국 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중남미 각 나라 현지인들을 섬기는 사역자들도 참여하는 커피브레이크 국제 컨퍼런스가 제15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번 컨퍼런스의 목적에는 구봉주 목사(감사한인교회)/ 김민순 목사 (앨버커키 갈릴리교회)/ 김인철 목사 (오렌지 가나안 교회)/ 노희송 목사 (토론토 큰빛교회)/ 이황영 목사 (남가주 기쁨의 교회), 양춘길 목사 (뉴저지 필그림 선교교회)/ 이일복 목사 (세미한 장로교회)/ 백은실 (CBM 글로벌 강사 및 고문)/ 한태욱 (CBM 글로벌 강사 및 고문)/ 조윤희 (Coffee Break Ministry 대표)/ 계순정 (커피브레이크 워크숍 강사)/ 김혜란 (커피브레이크 워크숍 강사) / 정혜란 (커피브레이크 워크숍 강사)가 강사로 참여하며, 6개의 선택 강좌가 마련된다.

컨퍼런스 기간 동안 자녀들(K-5th Grade)을 위한 VBS 가 이루어지며 부모와 함께 등록하는 경우 Youth 자녀(6학년 이상) 등록비는 무료이고 30대 참가자들을 위한 혜택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http://www.coffeebreakkorea.org/contents/conference_global.php)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등록비는 조기 등록 시 성인 $155, 자녀 $30이며, 조기 등록 이후에는 성인 $170, 자녀 $30이다. 컨퍼런스 교재 및 식사와 스낵이 제공된다. 김민선 기자

JAMA 설립자 김춘근 박사가 남긴 것들


2011년 자마대회(New Awakening Conference)에서 말씀을 전한 김춘근 박사. ⓒjamaglobal.org/

JAMA 설립자 김춘근 박사가 3월 10일 오전 8시 39분에 85세 일기로 소천한 가운데 그의 업적이 주목을 받고 있다.

김춘근(Dr. John Kim) 박사는 신앙과 의학을 겸비한 한인 지도자로서, 미주 한인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계에서도 큰 영향을 끼쳤다.

고 김 박사의 대표적인 사역 중 하나는 JAMA(Jesus Awakening Movement for America/All Nations, 예수의 제자 운동)의 설립이다. 1993년 설립된 JAMA는 미국과 전 세계에 영적 각성을 일으키고, 차세대 지도자를 세우는 운동을 목표로 시작됐다. JAMA는 단순한 집회나 행사 중심의 운동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을 중심으로 한 깊이 있는 제자훈련과 영적 성장을 강조했다. 이에 한국뿐만 아니라 미주 한인교회와 글로벌 선교계에서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을 배출하는 귀중한 플랫폼이 됐다.

그는 JAMA를 통해 한인 차세대 리더들을 세우는 일에 집중했고, 기독교 신앙이 단순한 교리적 지식이 아니라 삶과 사회 속에서 실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청년들과 차세대 크리스천 리더들에게 깊은 영향을 끼쳐 한인 디아스포라 신앙 공동체의 부흥에 기여했다. 그가 많은 집회에서 전했던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 뜨거운 복음의 메세지를 접했던 이들은 그의 모습을 그리워할 것이다.

김춘근 박사는 생전에 "우리는 미국을 변화시키기 위해 부름 받았다"는 사명을 강조했다. 그의 사역을 통해 수많은 이들이 복음을 경험하고, 선교와 교회 개척의 비전을 품게됐다.

1939년생인 김 박사는 미국 내 3개 대학에서 40여 년간 교수로 재직했다. 또 글로벌 리더십 개발원(GLDI)을 설립해 차세대 리더 양성에도 힘썼다.

지난달 신장암으로 건강이 악화돼 합병증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후 가정에서 호스피스 돌봄을 받으며 안정을 취하고 있었다.

JAMA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김춘근 박사(Dr. John Kim)가 그의 주님이자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됐다는 소식을 무겁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전한다"며 "그는 그를 열정적으로 사랑했고 온 마음과 정신, 영혼, 힘을 다해 지치지 않고 섬겼다"고 애도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김 박사의 깊고 변함없는 믿음을 눈으로 봤고, 그가 더 이상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곳에 있으며, 주인의 기쁨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다는 사실에 대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고 전했다. 김춘근 박사는 경희대를 거쳐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대에서 정치학 석·박사 학위를 받고, 페퍼다인대와 알래스카주립대, CSUMB 등에서 교수로 지내며 후학을 양성했다.

1976년 간 경화와 간염으로 죽을 고비를 기적적으로 넘기면서 회심한 후 평신도 사역자로 헌신했다. 1985년 기도 중 '미국을 신앙으로 위대하게 만들라'는 비전을 받은 그는 미국 각지의 350개 대학을 찾아 학생들에게 회개와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1993년 미 동부에서 열린 대학생 청년 비전 컨퍼런스 후, 하나님으로부터 "각성! 각성! 각성!"이라는 마음을 받고 기도와 연구를 시작했으며, LA에서 몇몇 동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던 중 엄청난 비전을 보게 됐다. 이를 통해 역대하 7장 14절을 중심으로 미국을 위한 기도의 사명을 받고 JAMA 운동을 시작했다.

JAMA는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하나님 약속으로 붙들고 이 땅에 대한 오너십과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강한 영향력을 주는 리더, 그리스도의 대사를 키우며, 이 땅을 영적·도덕적으로 살리기 위한 회개와 기도 운동, 영적 대각성 운동이다.

토마스 맹 기자



아버지 밥상교회(홈리스미션)
홈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 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2

기독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장재효,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발 행 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T.(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a@gmail.com
주 소 :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BTS SOLAR DESIGN
태양광, 솔라!!
주택용 30% Tax Credit / 상업용 최대 80% Tax Benefit
*** 전기세 50~90% 절감 ***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텍스 크레딧: 최대 30%
감가상각: 최대 80%적용
(2024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 ~ 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Why BTS Solar?
고객님들께 드리는 서비스 약속
최고의 서비스
잘 훈련된 프로페셔널 팀이
최고의 제품을 사용하여 설치해 드립니다.
최고의 워런티
고객님의 시스템은 언제나 안전합니다.
업계 최장 25년 워런티를 보장합니다.
최고의 제안가격
타사대비 25-40%
저렴한 가격으로 제안 드립니다.

FREE
무료 설치 서비스
전기차에 필수인
240V 아울렛을 무료 설치 해 드립니다.


백업용 배터리
정전에도 끄떡없고 절약을 위한 옵션,
고객님들께 원가에 제공합니다.
SCE 지역 필수 / LADWP 선택 옵션

초기부담 없는 $0 다운부터
풀 페이먼트 / 할부 결제 / PPA

www.btssolardesign.com
BTSSolar

LA: 2621 W. Olympic Blvd. #206
Los Angeles, CA 90006
213.500.8000
OC: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714.702.0151

빠른 상담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진행해주십시오.
1. 최신 전기빌을 준비해 주세요.
2. 전기빌 1~4 페이지를 사진 찍으신 후 문자 또는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3. 확인 후 고객님께 별도 안내 드립니다.



시니어 건강칼럼 - 근육관절통증

스포츠 스타들이 선택한 특별한 통증 치료

"PRP가 뭐길래 타이거우즈도 시술받았나?"

PRP란 무엇인가

세계적인 운동선수들은 경기 중 입은 부상에서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치료법을 시도합니다. 그중에서도 최근 주목받는 치료법이 바로 PRP(Platelet-Rich Plasma, 혈소판 풍부 혈장) 주사입니다. PRP 주사는 선수들의 부상 회복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받을 수 있는 치료법으로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포츠 스타들이 신뢰하는 PRP 치료, 우리도 받을 수 있을까요?

운동선수들이 PRP를 선택한 이유

PRP 주사는 환자의 혈액에서 혈소판이 풍부한 혈장을 추출해 손상된 부위에 주입하는 치료법으로, 조직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특히 스포츠 선수들이 겪는 관절, 힘줄, 인대 손상 회복에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들은 PRP 주사를 활용하여 경기 복귀 속도를 높이고, 자연치유를 촉진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한인 시니어들이 익숙한 몇몇 스타들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스포츠 스타들의 PRP 경험

타이거 우즈 (골프 전설) -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는 무릎 부상 후 PRP 치료를 받으며 빠르게 경기장으로 복귀했습니다. PRP 주사를 통해 무릎 회복을 촉진하며 수술 없이 자연 회복을 선택했습니다.

류현진 (메이저리그 투수) - 한국인들에게 친숙한 야구 선수 류현진은 팔꿈치 부상을 당한 후 PRP 주사를 활용하여 회복을 도왔습니다. 수술 대신 자연 치유를 촉진하는 PRP 치료를 선택한 것입니다.

오승환 (야구 투수, '돌부처') - 강한 투구폼으로 인해 팔꿈치에 지속적인 부담을 받아온 오승환 선수 역시 PRP 치료를 받았습니다. 스테로이드 없이 자기 몸을 회복할 수 있는 선택지로 PRP를 활용했습니다.

코비 브라이언트 (NBA 레전드) - 코비 브라이언트는 무릎 문제로 독일에서 PRP 치료를 받으며 경기력을 유지했습니다. 이후 PRP 치료가 스포츠계에서 더욱 유명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미 입증된 치료법, 시니어들에게도 가능할까?

이처럼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들이 신뢰하고 선택한 PRP 치료법은 단순한 실험적 치료가 아닙니다. 이미 전문적인 의료진과 연구를 통해 효과가 입증된 치료법이며, 스포츠 분야뿐만 아니라 정형외과 및 재활의학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시니어들도 받을 수 있는 PRP 치료

관절염이나 인대 손상, 만성 통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편한 시니어들에게도 PRP 치료는 매우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PRP 주사는 운동선수들만의 치료법이 아닙니다. 한인 시니어들도 관절 건강을 지키고, 자연 치유력을 높이기 위해 PRP 주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스포츠 스타들처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

PRP 주사는 스테로이드 주사처럼 일시적인 통증 완화가 아닌, 장기적인 조직 재생을 돕는 근본적인 치료법입니다. 시니어들은 PRP 치료를 통해 운동선수들과 마찬가지로 연골과 조직을 회복하고, 보다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믿고 선택한 치료법, 우리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를 위해 PRP 시술을 100% 커버하는 클리닉

센터메디컬그룹은 각 직영 클리닉의 환자들에게 PRP 시술을 비롯한 모든 통증 관련 시술을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자들이 직영 클리닉의 의사를 주치의로 선택하면, PRP 통증 시술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다는 의미입니다.** (자세한 클리닉 정보는 아래에)

센터메디컬클리닉-가든그로브점 (임유일주치의)
12372 Garden Grove Blvd., #B, Garden Grove, CA 92843 (714. 583. 8569)

센터메디컬클리닉-로렌하이츠점(송홍우주치의)
19115 Colima Rd., #105, Rowland Heights, CA 91748 (626. 363. 4661)

센터메디컬그룹

구미 등에서 '세이브 코리아' "자유대한민국 지켜 후대에"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이하 세이브코리아)가 15일 오후 서울, 구미, 대전, 부산, 울산, 세종, 순천, 전주, 제주, 춘천, 포항, 청주 등 전국 12개 도시에서 열렸다. 이 가운데 세이브코리아 대표 손현보 목사와 한국사 전한길 강사가 경북 구미에서 열린 집회에 참여했다.

구미역 일대에서 열린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3만여 명, 경찰 측 추산 4천여 명이 운집했다. 성만순 사모(세이브코리아 구미 부대표)의 사회와 전용남 목사(구미신월교회 담임)의 기도로 시작된 이날 기도회에서는 먼저, 세이브코리아 대표 손현보 목사(세계로교회)가 인사 메시지를 전했다.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가 15일 경북 구미에서 주최 측 추산 3만 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주최측 제공

◆ "목숨 다해 자유대한민국 지키자"

손현보 목사는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의 영웅이요, 오천년 동안 굶주렸던 백성들에게 풍요를 선사한 박정희 대통령의 탄생지요, 주축 사업으로 이 나라를 살렸던 곳이 구미"라고 했다.

손 목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없었다면 쥐도 새도 모르게 전체주의 국가가 되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잘 사는 이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쿠바, 캄보디아, 홍콩과 같은 나라를 보라. 잘 살던 나라도 지도자들이 잘못 세워져 몇 년 안에 무너졌다"며 "우리는 이 나라의 사법부가 현직 대통령까지 법을 무시하고 구속하는 것을 보았다. 6.25 인민재판과 중국 문화혁명 때와 다를 바가 없다. 이 나라는 언론과 방송, 사법부와 노동계, 교육계는 물론, 심지어 종교계 안에서도 종북 좌파가 판을 치며, 누구도 제재를 못하는 사회가 되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계엄령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당연한 권리다. 대통령의 당연한 권리를 민주당은 공작, 회유, 선동으로 내란으로 몰아 대통령을 불법 체포하고 구금했다"며 "이번에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다면 헌법재판소는 상상할 수 없는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그 책임은 철저히 사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헌재에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해야 한다. 독립운동하듯이 목숨을 걸고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으며, 물러서서도 안 된다"며 "이 낙동강 전선을 지키지 못하면 더 이상 자유대한민국은 없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싸워 승리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일제시대 때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우는 자들이 많았고, 6.25 전쟁 때는 고지 하나를 탈환하기 위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수십 만 명의 젊은이들이 피를 뿌렸다. 우리는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 목숨을 다해 지켜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최문선 목사(구미송정교회 담임)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대하 14:11) ▲권오수 목사(김천신광교회 담임)가 '정금같게 하리라'(욥 23:10)라는 제목으로 각각 메시지를 전했고, 기도회는 문균식 목사(온유한교회)의 인도의 나라를 살리는 기도(통성기도), 이병도 목사(세이브코리아 구미 대표)의 축도 순서로 마무리됐다.

다음 2부 국민대회 순서는 김복연 목사의 오프닝 멘트, 국민의례, 윤석열 대통령 응원가, 내빈소개로 시작되었으며, 참석한 정치인들의 발언이 있었다.

◆ "탄핵 각하만이 무너진 대한민국 법치주의 다시 살리는 길"

먼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구미는 보수가 태생된 보수의 성지다. 그리고 불세출의 영웅 박정희 대통령이 탄생한 곳이기도 하다"며 "그런데 대통령 탄핵과 구속 사태를 겪으며 삼대 검은 카르텔 세력이 대한민국을 붕괴시키고 있다. 우리는 이제 결단을 해야 한다.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으로 재무장해 대한민국을 붕괴시키는 삼대 검은 카르텔 세력을 척결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구출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내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우리는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절차의 불공정, 불법, 정책 편향을 여실히 보았다"며 "이것은 결코 결과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 없다. 그래서 대통령 탄핵 각하만이 헌법재판소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길이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다시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 "자유의 파도, 그 시작은 윤 대통령 탄핵 각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국민들 덕분에 대통령 탄핵 재판이 여기까지 왔다. 조금만 더 힘내자"며 "민주당의 거짓 내란선동의 둑이 무너지고 있다. 이 내란 사기극을 끝내려면 대통령 탄핵 각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자유의 방파제, 대한민국의 힘으로 자유의 파도를 만들어서 북한 땅 주민들에게 자유를 안기는 그날까지 자유의 파도를 거세게 만들어 보자"며 "그 시작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무효, 탄핵 각하로 직무 복귀하는 그날부터"라고 역설했다.

◆ "대한민국은 체제 전쟁 중"

이어서 '체제 전쟁의 본질'이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전한 이성구 공동대표(부산통일광장기도연합)는 "지금 대한민국은 체제 전쟁 중이다.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이라며 "주사파 및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이 땅을 낙원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며 로마서 3장 10~18절 말씀을 인용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은 자신을 하나님인 줄 착각하여 대통령이 되어 이 나라를 태평성대하게 하겠다고 말한다. 대표적인 사람이 북한 지도자들"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성경은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고 한다. 그래서 절대로 인간이 선을 만들 수 없다. 그렇게 인정하며 겸손히 의견을 구하며 함께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자들"이라며 "이 땅을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가자"고 했다.

◆ "자유민주주의 위해 싸우는 나라, 대한민국과 미국"

다음으로 보수 유튜버 노매드크리틱, 국대떡볶이 김상현 대표, 유튜버 하세베 등이 연설했다. 김상현 대표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 35세 때 성경이 사실임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원수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게 되었다"며 "제가 목숨을 걸고 공산주의와 싸우는 이유는 공산주의는 사탄·마귀이기 때문이다. 성경을 못 믿게 한다.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에 가지 못하게 만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나라는 세계에서 두 나라 밖에 없다. 바로 대한민국와 미국"이라며 "왜냐하면 교회가 살아있고, 성경을 믿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이 위기는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에 있다. 그래도 살아 있는 교회가 있기에 힘을 낼 수 있는 것"이라며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끝까지 싸우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외쳤다.

이어서 학생들의 메시지 순서가 진행됐다. 아스팔트 인생 10년차 이드보라 학생이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자' ▲노승주 학생(카이스트)이 '모든 중국인은 잠재적 간첩' ▲김민섭 학생(서울대)이 '87 제왕적 의회제 혁파' ▲김태우 학생(영남대)이 '자유롭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대한민국을 재건합시다' ▲조용균 학생(경북대)이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강인묵 학생(전남대)이 '지켜낸 자유, 지켜낼 미래'라는 주제로 각각 메시지를 전했다.

◆ "자유민주주의 수호하여 후손에 물려주기 위함"

마지막으로 '윤통 복귀와 제2의 건국'이라는 주제로 연설한 한국사 전한길 강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와 직무복귀를 원하는 것 이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우리의 주장이 있다"며 계엄선포 이후 지난 100일 간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이 외환죄와 내란죄를 뒤집어씌우려다가 거짓으로 드러났다. 선관위 또한 문제가 드러났는데, 과연 누가 공정하고, 법치를 존중하는가"라며 "그리고 공수처도 불법 체포와 불법 수사 등 거짓이 드러났다"며 언론매체에 거짓 없는 진실된 보도를 요청했다. 이어 "SNS를 검열하고,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민주당의 모습이 우리가 지지하는 당의 모습이 맞는가"라며 "저는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랑하며 진실만을 말하자는 것이 지금까지 살아온 신념이다. 2030세대와 자라나는 10대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고, 진실만을 알려 주어야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중요하다. 다음주로 예상 대는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헌법재판관들 향해 "솔로몬의 재판이 필요하다. 국가를 살리고, 국민들이 나뉘지 않고, 헌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탄핵 각하 결정이다. 탄핵 각하가 될 때, 먼저는 헌법재판소 안에 불법 심리가 많았는데, 탄핵소추 구성 요건이 되지 않기에 불법 요소들을 용서 받을 수 있으며, 또한, 국론이 분열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은 폭력과 분열이 아닌 통합과 화합 그리고 평화를 원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친중 세력으로 인해 제2의 홍콩이 되는 것을 막고, 자유민주주의가 확고해지고 그리하여 2030세대와 후손들이 대한민국에서 마음껏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물려주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없었다면 지금의 선관위·헌재·공수처의 문제와 민주당의 패악을 몰랐을 것"이라며 "비상계엄이 곧 계몽령이며,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는 기회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 각하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전한길 강사 등 주요 연사들이 함께하는 세이브코리아 전국 순회가 다음주 22일 강원도 춘천시에서 열릴 예정이다.

장요한 기자





서울메디칼그룹이
No.1 인 이유는
늘 따듯한 마음으로 가족을 지켜온
오늘의 당신 덕분입니다

더 많은 사랑으로
더 건강한 시간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SMG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그라운드C, '대한민국 공산화 가능성'에 대해 말하다

기독교인들은 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나?

"탄핵 반대"를 외치며 거리로 쏟아져 나온 기독교인들에게서 "공산주의에 반대한다"는 말을 종종 들을 수 있다. 그들에게 '공산주의'는 단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의 위협이다.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그 자리를 공산주의가 대신하게 되면, 더 이상 지금과 같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두려움에, 그들은 유일하게 그 자유가 숨 쉴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부르짖는다.

그러나 이를 보고 "21세에 무슨 공산주의냐"라고 비판하는 이들도 있다. '반공'은 그것을 통해 정치 권력을 얻고자 하는 세력의 선동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나이 많은 교회의 장로, 집사, 평신도, 때론 목사들이 현혹된 것일 뿐이라고 그들은 일갈한다. 정말 그럴까?

유튜브 채널 '그라운드C'의 김성원 대표를 12일 만나, 그에게 '대한민국 공산화 가능성'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그라운드C는 최근 탄핵정국에서 탄핵 반대를 가장 앞장서 주장하며 주목받고 있는 유튜브 채널 중 하나다. 현재 구독자는 약 82만 명에 이른다. 기독교인이기도 한 김성원 대표의 말을 아래 요약·정리했다.

과반 의석 정당 생기면 국회 독재 구조
그 당 이념이 사회주의 경도돼 있다면
대한민국 공산화로 가는 것 시간문제
베네수엘라 · 아르헨티나도 한때 잘 살아

"21세기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공산화는 너무 먼 이야기이고, 와닿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역사와 지금 세계정치의 흐름을 보면 공산화는 충분히 가능성 있다.

공산화라고 할 때, 그것이 처음부터 '김일성을 숭배하라'거나 '종교를 핍박하겠다'고 하며 다가오지 않는다. '공산(共産)'은 문자 그대로 함께 나누는 세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것을 나눠서 내가 좌지우지하겠다' 이런 것을 추구하는 정당이 있다면 굉장히 경계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시도했던 법안들을 보자.

우선 양곡관리법은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을 사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정부가 무조건 쌀을 사주기 때문에 쌀의 질이 내려갈 것이다. 또 우리 농업이 다른 작물보다 쌀을 재배하는 쪽으로 바뀔 것이다. 결국 질 낮은 쌀만 생산될 것이다. 이게 바로 사회주의식 접근의 문제점이다.

그리고 노란봉투법. 노조가 회사 경영에 참여하게끔 문을 열어 주는 법이다. 노조에서 한 번 탈퇴했던 사람도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그럼 경영 자율도가 내려가게 되면서 투자 등에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실제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것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가 과도한 노조의 행위다. 이뿐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우버' 같이 되고자 '타다'라는 기업이 약진했는데 민주당에 의해 가로막혀 소위 '타다금지법'이 생겼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타다의 CEO가 지금까지도 울부짖고 있다.

그 다음 반도체특별법. 지금 대만과 미국엔 '주 52시간제' 같은 게 없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주 7일 열심히 일해야 한다. 미국의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그렇다. 정말 열심히 일해 나온 수익을 그 기업이 가져가게 된다. 그런데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를 반대하고 있다.

이젠 국회증언법까지 예고하고 있다. 기업들이 국회에 의무적으로 나와 국회의원들이 물어보는 질문에 답을 하도록 한 법이다. 그 과정에서 기업의 기밀이 유출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25만 원을 전 국민에게 나눠 주겠다고 한다. 그럼 초인플레가 오고 현금 살포에 중독된 국민들은 더 이상 일하는 것을 꺼리게 될 것이다. 그 일이 정확하게 베네수엘라와 이르헨티나에서 일어났다. 공산화가 멀리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베네수엘라는 과거 '민주주의의 진열장'이라는 별명을 가졌다. 지금은 쓰레기통을 뒤지는 나라가 됐지만 20세기 중반만 하더라도 풍부한 에너지와 농업 생산을 통해 정말 잘 먹고 잘 살았다. 한때는 GDP가 5등까지 올라간 적도 있다.

그랬던 나라가 기업을 규제하고 정부와 당이 소유권을 컨트롤하면서 기울기 시작했다. 소유권을 통제한다는 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른다는 거다. 여기에서 가장 최악의 일이 발생하는데 노동을 하기 싫어하는 국민들 사이에 도덕적 해이가 편재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복지에 중독되는 것이다. 아르헨티나는 20세기 중반만 하더라도 굉장히 잘 살았다.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는 한때 '남미의 파리'라 불렸다. 심지어 1차 대전 이후 유럽에서 이르헨티나로 이민을 가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그 나라도 국민들이 사회주의와 무한복지에 맛 들려 회복이 안 되는 나라로 전락해버렸다. 공항에는 노숙자들이 가득하고, 국민의 3분의 1이 극빈층이다. 지금 민주당처럼, 정당의 권력이 제어되지 않고 폭주하게 되면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른다. 우리나라 헌법은 국회에 대해 수많은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불체포 특권을 누리지만, 국익을 해치는 법안을 발의했을 때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같은, 탄핵 남발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도 없다.

한 정당이 과반 의석을 가지게 되는 순간 사실상 국회가 독재 할 수 있는 구조인데, 만약 그런 정당의 이념이 사회주의적으로 경도돼 있다면, 대한민국이 공산화로 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경제정책을 사회주의식으로 할뿐 아니라 안보도 사실상 친북·친중 노선에 있다.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민주당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민노총은 단순한 노동조합이 아니다. 그 간부들이 지금 무엇으로 재판을 받고 있나. 김정은에게 충성맹세를 하고 북한 지령에 따라 한국 사회를 전복시키려 했다고 해서 1심에서 유죄가 나오지 않았나. 민노총은 북한의 지령문을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집단이다. 그냥 노동조합이 아니다. 또 간첩법 개정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다. 지금 간첩법은 북한에 부역한 자만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것을 중국 등 다른 나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은 엄청나게 많은 입법을 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국회의 법안 발의 숫자가 영국에 비해 약 170배 더 많다. 일본보다는 100배를 더 쏟아낸다. 국가 경쟁력을 평가하는 스위스의 한 기관이 규제로 인해 기업을 하기 힘든 나라의 순위를 매겼다. 대한민국을 전체 63개 국 중 거의 꼴지 수준인 58위에 놓았다. 그 어떤 나라보다 많은 법을 발의하면서도 기업을 하기엔 좋지 않은 나라… 이것이 뭘 의미하나? 북한을 추종하는 민노총의 인질로 잡힌 민주당이 대한민국 경제를 완전히 갉아먹고 있다는 거다. 이런 상황에서 이젠 중국에까지 기울었다? 민주당이 정말 우리나라를 상상을 초월하는 나라로 만들 수 있다. 반대한민국적 이념과 방향성을 갖고 있는 집단이 행정부마저 장악하면 대한민국은 급속도로 공산화의 길로 접어들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집단인 북한과 중국을 가까이 두고 있기 때문에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보다 더 악조건 속에 있다. 정말 위험한 상황이다."



그라운드C 김성원 대표.

정상 좌파 당이라면 중공 위협 막을 것
현 상황, 좌우 관점으로 보기엔 예외적
민주당에 기독 의원 있다는 것 알지만…

(기자: 민주당 안에도 기독교인 국회의원들이 있지 않나.)

"저는 지금 민주당을 단순한 좌파 정당으로 보지 않는다. 고전적 의미에서 좌파는 약자들에게 좀 더 많이 베푸는 등 정부가 사회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세력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금 민주당은 그 선을 넘었다고 본다.

중국이 우리나라 군사 기밀에 대해 1년에 3천 건 정도 해킹을 시도한다. 우리나라 블랙요원 정보와 기업의 기밀정보도 중국으로 유출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항공모함에 승선했을 때, 중국의 우수 공산당원이 이를 촬영했다. 중국인이 드론으로 우리 국정원을 촬영하기도 했다. 이쯤 되면 정상적인 좌파 정당은 약자들과 대한민국을 위해, 중국 공산당의 위협을 차단하는 행보를 보일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또 하나, 민주당이 그냥 노동조합과 함께 하면 저는 그들을 좌파 정당으로 분류하겠다. 하지만 민노총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반국가적 행위를 대놓고 한다. 이런 민노총과 사실상의 공생 관계인 민주당이 과연 좌파 정당인가? 저는 그 선을 넘었다고 본다. 고전적 의미의 좌파 범주에 넣지 못할 정도로 그들은 극단적 정치를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의 관점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예외적인 구간으로 들어왔다.

민주당 내에도 기독교인 정치인들이 있다는 것을 저도 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차별금지법에 찬성한다고 이미 이야기한 적이 있다. 동성애자들을 공공기관에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겠다는 말도 했었다. 설교 등 종교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정책을 채택할 수 있는 정당이라면 거기서 나오는 게 정상이다. 그것이야말로 기독교인이 해야 할 선택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동조하고 가세해서 더 많은 권력을 쟁취하려 한다면, 그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도전이다.

성경에도 믿음의 길에서 떠난 많은 이들이 나온다. 하나님을 믿는다 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하지 못했다. 결국 참된 신앙은 행위와 세계관으로 증명되는 것이다. 그 행위와 세계관이 철저히 반기독교적으로 돼 있다면 그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한다."

"제 모토는 갈라디아서 5장 1절이다. 이 말씀은 제가 존경하는 이승만 대통령의 유언이기도 하다. 교회사와 세계사를 공부해보니 자유라는 것이 너무 소중하더라. 안류사에서 소수에게만 허락됐던 권리였다. 그런 자유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질식사하고 있다. 저는 이걸 외면할 수 없었다. 그래서 많은 불이익과 오해, 때론 협박과 조롱도 받고 있지만 괜찮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의 가치가 너무 크고 소중하기 때문이다. 이 유산을 어찌 소멸할 수 있겠는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자유를 전수해 주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하며 싸우고 있다."

김진영 기자



파키스탄서 '신성모독 조작' 연루된 판사 사임



▲파키스탄 동부와 인도 북서부에 위치한 펀자브주 주도 라호르.

파키스탄에서 범죄 조직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기독교인들을 신성모독 혐의로 거짓 고발했던 고등법원 판사가 사임했다고 한 소식통이 전했다.

라호르고등법원(LHC)의 쵸드리 압둘 아지즈(Chaudhry Abdul Aziz) 판사는 3월 6일(이하 현지시각) 아시프 알리 자르다리(Asif Ali Zardari) 대통령 앞으로 사표를 제출했다. 그는 2016년 11월 LHC 판사로 임명됐다. 신성모독 혐의를 받는 기독교인의 변호를 맡아 온 일부 변호사들은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모닝스타뉴스(MSN)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판사로부터 소송 진행 중 압박을 받았다는 사실도 밝혔다. 익명을 조건으로 한 무슬림 변호사는 "아지즈 판사는 사임하기 불과 며칠 전, 신성모독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NCHR) 보고서를 근거로 한 모든 불리한 조치에 대해 집행유예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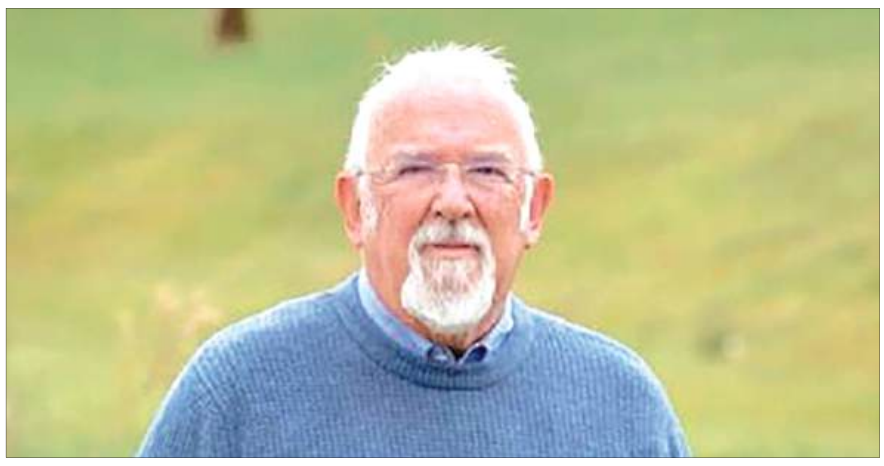
'타하푸즈-칸탐-이-나부와트(Tahaffuz-i-Khatam-i-Nabuwwat) 포럼'(예언자의 최종성 보호 운동) 임원인 사지드 이쿠발 나샤리(Sajid Iqbal Lashari)는 아지즈의 법정에서 NCHR 보고서에 대해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신성모독 사건에 대한 적법 절차 준수가 부족하며, 여러 단계에서 중대한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밝혔다.

NCHR 보고서는 인권부를 통해 경찰 특수부, 정보국, 법무부, 내무부, 연방수사국(FIA) 및 기타 관련 부서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수사팀(JIT)을 구성해 신성모독 사건을 처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 불법 체포 또는 뇌물 요구와 관련된 FIA 공무원에 대한 엄격한 징계 절차를 요구하며, 여러 신성모독 사건의 배후에 있는 민간단체 및 개인 원고에 대한 FIA의 관대함을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무슬림 변호사는 CDI-MSN과의 인터뷰에서 "아지즈 판사가 물러나야 했던 이유는 파키스탄의 노골적인 인권 침해,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거짓 모독 사건이 급증한 것에 대해 조치를 취하라는 국제사회의 압력이 파키스탄의 시민-군부 조직에 가해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판사가 신성모독 사업단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은 파키스탄 당국이 금지한 웹사이트인 팩트 포커스의 조사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아지즈 판사는 신성모독 사업단의 주모자로 알려진 라오 압둘 라힘(Rao Abdul Rahim) 변호사와 함께 오랫동안 신성모독 사건을 다룬 이력이 있었다.

팩트 포커스에 따르면, 두 변호사는 2012년 8월 이슬라마바드의 11세 기독교인 소녀 림샤 마시(Rimsha Masih)에 대한 신성모독 소송을 조작하는 데 연루됐다. 이 보고서는 "사법 조사에서 림샤에 대한 소송이 전적으로 거짓임이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지즈는 4년 만에 고등법원 판사로 임명됐다"고 했다.

또 보고서는 무슬림 용의자 아메드 사티의 신성모독 사건을 인용해 "많은 신성모독 관련 사건이 라호르 고등법원에서 아지즈에게 배정됐다. 아지즈가 사티의 보석을 최종적으로 기각하기 전, 불필요하게 4개월 동안 보석 기각 명령을 보류했고, 결국 대법원은 같은 사건에 대해 청원인을 주장된 범죄와 연결할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판결하고 그에게 보석을 허가했다"고 전했다. 강혜진 기자

북아일랜드 목사, 낙태시술소 근처서 설교했다 기소돼



▲사이먼 칼버트 목사. ⓒ크리스천 인스티튜트

북아일랜드 콜레레인에 있는 낙태시술소 근처에서 침례교 은퇴목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본문으로 야외 설교를 한 뒤 완충구역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아일랜드침례협회의 전 회장인 클라이브 존스턴(CLIVE JOHNSTON·76) 목사는 "낙태 서비스를 받는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려 하고, 해당 지역을 떠나라는 경찰의 지시에 따르지 않아 '낙태 서비스(안전접근구역) 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존스턴 목사의 변호를 맡은 '크리스천 인스티튜트'(CHRISTIAN INSTITUTE)는 "그의 설교는 지난 2024년 7월 7일(이하 현지시각) 코즈웨이 병원 근처 잔디밭에서 선포됐다. 그 장소는 병원과 이중차도로 분리돼 있었고, 약 12명의 예배 참석자는 나무 십자가를 걸어 놓고 찬송가를 함께 불렀다"고 했다.

당국은 설교에 낙태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었고 존스턴 목사 등이 플래카드도 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가 완충지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했다.

존스턴 목사는 3월 21일 콜레레인치안법원에 출두할 예정이며, 한화로 총 수백만 원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

크리스천인스티튜트 사이먼 칼버트(SIMON CALVERT) 부국장은 "검찰의 기소는 종교와 언론의 자유에 대한 터무니없는 규제"라며 "낙태시술소 근처에서의 괴롭힘이나 시위를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완충지대법이 오용되고 있다. 낙태에 대한 언급 없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낙태에 대한 항의라는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 경찰과 검찰은 선을 넘었다. 이것은 완충지대가 설계된 목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2022년 녹색당이 도입한 낙태 서비스(안전접근구역)법은 북아일랜드의 병원과 낙태시술소 주변에 100~150M의 완충구역을 설정했다. 이 법은 이러한 구역 내에서 방해·기록을 하거나, 영향을 미치거나, 괴롭힘·불안·고통을 유발하는 활동을 금지한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이 법이 낙태와 무관한 신앙이나 언론의 표현을 억압하는 데 사용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존스턴 목사의 지지자들은 "그의 모임이 (낙태시술소의 영업에) 방해가 되지 않았으며, 그의 설교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타난 것처럼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복음 메시지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강혜진 기자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주일 오후 2:00
장년기초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영혼의 샘 내적치유 영성집회 - 월-금 오후 7:30 - 토 오후 3:00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차세대예배 오전 9:15)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새벽예배 (월)온라인 Only 오전 6시 (화~토) - 오전 6:00
수요중보기도모임 온라인 오후 8시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깨우고,이민2세를책임지며,이민가정을치료하며,선교명령을순종하는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lden 코너)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0:50
금요말씀과 삶 공부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월~토) 오후 9:00
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50
청소년예배 오전 10:50
어린이예배 오전 10:50
새벽예배 오전 6:00 (화-금)
토요비젼새벽예배 오전 6:3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com

주일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엘리야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439 S Western. #100, LA, CA 90020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수/금요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1부예배 오전 7:30 본당
주일2부예배 오전 9:30 본당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본당
주일4부예배 오후 1:31 비전센터
OMC 주일학교 오전 11:30 교육관 1층
OMC 중고등부 오전 11:30 교육관 4층
OMC소망부 오전 11:30 교육관 427호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본당
주중새벽기도회 온라인(Online)
수요중보기도회 오전 10:00 본당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323)466-1234 Email: om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주일예배 2부 오전 9:5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EM Worship Sunday 2:00
김일형 담임목사
새생명오아시스교회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0-700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주일예배 오전11시
새벽기도회 오전 6시(금, 토)
김재연 담임목사
영생교회
1829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2-735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금요저녁기도회 오후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이수호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387-1700 olympicch@gmail.com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수요예배: 저녁 7시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라디오 방송설교
라디오서울 AM 1560
주일 아침 6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1:00
라티노 오후 5:00
GCEM 오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본당/온라인
김창섭 담임목사
세계선교교회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213) 388-1927 www.wmcla.com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10:50
한국학교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토요새벽 오전 6:00
고광선 담임목사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대학청년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한현종 담임목사
크렌셔장로교회
1060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407-160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 오전10:00
유초등부 오전11:00
중고등부 오전11:00
E.M(대.청) 오후 1: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30 (토)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주일 오전 10:00 하톤교회
4500 W. El Segundo Hawthorne, CA 90250
Tel. 310-706-7721
진건호 담임목사
주일 오후 1:00 가든그로브한인교회
13411 S. Euclid St. Garden Grove, CA 92843
주일 오후 7:00 웨스턴교회
439 S. Western Ave, LA, CA 9002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choonghyun.org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이황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sc.com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윤성현 담임목사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11:00
EM 1부 9:30/ 2부 11:00
중/고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김정훈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0:45
EM성인예배 오전 9:3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 530-4040 / F.(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KM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려짐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주일1부 오전 7:45
주일2부 오전 9:45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GRC(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방상용 담임목사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행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주일1부예배 8:00am
주일2부예배 9:30am
주일3부예배 11:15am
주일교육부예배 11:00am
주일EM예배 11:00am
수요찬양집회 7:30pm
토요새벽예배 6:00am
주중새벽예배(온라인) 5:30am
정유성 담임목사
오렌지한인교회
643 W. Malvern Avenue, Fullerton, CA. 92832
T. (714) 871-8320 / www.okcrc.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 오후 7: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밸가든구국재단 :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이우호 담임목사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 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지영환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전 11:00(수)
중보기도 오전 9:30(목)
제자성서 오전 9:30(금)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림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7:00
2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일본어 예배 오후 1:15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김한요 담임목사
베 델 교 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11:15
한어부 오후 1:00
KM대학청년부 오후 2:30
박신웅 담당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월-금)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뤄가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rcoc.com

1부예배 오전 07:20
2부예배 오전 09:10
3부예배 오후 11:20
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토요일 오전 06:00
금요성령예배 오후 073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 훈 담임목사
함 께 걷 는 교 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주일예배 3부 오전11:30
(청장년/교육부서)
수요여성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평일) 새벽 5:30
(토/주일) 새벽 6:00
김종규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714) 899-9191 / oc1church.com

1부예배 오전 8:2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EM 오후 1: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는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 lordlight.org

1부예배(EM) 주일 9:00am
2부예배(KM) 주일11:00am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금요찬양예배 8:00pm
(매월 두번째 금)
새벽예배 화~금 5:30am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LA 동부 지역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40
3부예배 오전 11:40
EM(Holy Wave) 오전 9:4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금요영성집회 저녁 7:30(금)
우영화 담임목사
LA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월-토)오전 6:00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구경모 담임목사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말씀강해 오후7:30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안 환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 622-1480 / inlandchurch.org

와이오밍주, 종교자유회복법 통과



▲와이오밍 주의회. ⓒ구글맵

미국 와이오밍주가 최근 50개 주 가운데 29번째로 '종교자유회복법'(RFRA)을 통과시켰다.

마크 고든(Mark Gordon) 와이오밍 주지사는 6일공화당이 주도하는 주의회의 압도적 찬성 속에 하원법안 207(HB 207)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은 하원에서 57대 3, 상원에서 28대 3으로 통과됐으며, 주로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았다.

이 법안은 연방 차원의 종교자유보호법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정부가 특정 개인의 종교적 신념과 활동을 '상당히 방해'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부의 중대한 이익'을 충족해야 하며, 최소한의 제한 수단을 통해서만 허용될 수 있다.

법에서 정의하는 '방해'에는 혜택 지급 거부, 형사 민사 또는 행정적 처벌 부과, 정부 프로그램에서 배제, 공공시설 접근 제한 등이 포함된다. 즉 개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경우, 법적으로 이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아트 워슈트(Art Washut) 하원의원은 "이 법안의 목적은 종교 자유와 관련된 소송에서 법원이 적용하는 기준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리 크라고(Barry Crago) 상원의원은 이 법안에 대해 "정부가 종교적 신념을 침해하려 할 때, 와이오밍주 주민들이 신앙 체계, 정치적 영향력, 이해 수준과 관계없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기독교법률단체 자유수호연맹(ADf) 그렉 차푸엔(Greg Chafuen) 선임변호사는 "이 법은 정부 정책이 와이오밍 주민의 종교 자유 권한을 침해하는지 판단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제공한다"며 "이 법이 모든 의견 불일치에서 누가 승리할지 결정하지는 않지만, 종교적 신념이나 정치 권력에 관계없이 정부 조치로 인해 종교 자유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모든 사람이 공정한 심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종교자유회복법을 제정한 주는 와이오밍을 비롯해 앨라배마, 애리조나, 아칸소, 플로리다, 아이다호, 일리노이, 인디애나, 아이오와, 캔자스, 켄터키,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미주리, 몬태나, 네브래스카, 뉴멕시코, 노스다코타, 오클라호마, 펜실베이니아, 로드아일랜드,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텍사스, 유타,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 등이다.

강혜진 기자

美, 18세기 법 근거로 베네수엘라 갱단원 대규모 추방

아이비리그 의대 교수까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6일 18세기에 제정된 법을 근거로 베네수엘라 갱단원 수백 명을 추방했다. 법원이 정부의 추방 명령 신청을 기각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는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 이미 항공편을 출발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 기각에도 강행된 추방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E. 보아스버그 판사는 시민단체들의 고발로 열린 청문회에서 정부의 추방 명령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추방 대상자들을 실은 두 대의 비행기는 이미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로 향해 출발한 상태였다. 보아스버그 판사는 즉시 비행기 회항을 명령했지만, 항공편은 그대로 목적지로 이동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조치와 논란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조치의 법적 근거로 삼은 것은 1798년에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Alien Enemies Act)이다. 이 법은 미국이 전쟁 중임을 선언하면 대통령이 외국인을 구금하거나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권한을 부여한다.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1812년 미영 전쟁 등 세 차례만 발동된 바 있으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계 미국인의 강제 수용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된 전례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한 갱단으로부터 침략당하고 있으며, 정부가 이러한 갱단원들을 즉시 추방할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불법 체류 중인 베네수엘라 마약 카르텔 '트렌데 아라과'(TdA) 갱단원을 즉시 검거, 구금, 추방할 재량권이 국토안보장관에게 부여된다"고 발표했다.

◈국제적 파장과 법적 논란

이번 조치는 국제적으로도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나입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 구 트위터) 계정에 "아…너무 늦었어요"라는 글을 올려, 이미 비행기가 도착했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스티븐 청 백악관 공보국장은 해당 게시물을 다시 공유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반영했다.

한편, 조지타운대 법학센터의 스티브 블라덱 교수는 "법원의 구두 지시는 최종 명령은 아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의 결정 정신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추방 대상 확대… 합법 체류자도 포함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갱단뿐만 아니라 합법적 비자를 소지한 전문직 종사자들도 추방 대상으로 포함했다. 이에 따라 미국 명문 아이비리그 대학인 브라운대 의대 신장이식 전문의 라샤 알라위(34) 교수도 추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레바논 국적인 알라위 교수는 유효한 비자와 법원의 추방 차단 명령에도 불구하고 강제 출국됐다. 그는 지난달 레바논에 거주하는 친척을 방문한 후 미국으로 돌아왔으나, 입국 당시 구금되었다. 법원이 정부에 대해 "추방 48시간 전 법원에 통지하라"고 명령했지만, 알라위 교수는 즉시 파리행 비행기에 탑승시켜졌다.

알라위 교수의 변호인은 "미국 국무부는 레바논에서 알라위 교수에게 고숙련 외국인 취업 비자인 H-1B를 발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추방이 강행됐다"고 주장했다. 브라운대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미국 국무부의 추가 지침이 있을 때까지 해외 여행을 자제하라"는 공지를 내렸다.

◈미국 입국 제한 확대 가능성

한편, 미국 정부는 43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NYT에 따르면, 북한·이란·베네수엘라·예멘 등 11개국이 '적색 목록'에 포함됐으며, 러시아 등 10개국은 부분적 입국 제한이 적용되는 '주황색 목록'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향후 미국의 이민 정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승연 기자

“미국인 60% 하나님 존재한다고 믿지 않아”



ⓒ Pixabay

새로운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절반 이상은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지 않거나 “하나님이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애리조나 기독교대학 문화연구센터는 최근 2025년 미국 세계관 목록의 두 번째 부분을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미국인의 60%가 하나님이 존재하거나 “하나님이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리조나 기독교대학교 연구 책임자인 조지 바나(George Barna)는 연구 결과에 대해 “이 연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에 대해 생각하는 데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할수록, 전면적인 국가적 회개와 영적 쇄신이 아니면 미국을 구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 경제적, 법적 또는 제도적 개선이 오늘날 미국에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한 문화적 경기장은 증상에 대처하는 처방을 제공할 뿐, 질병에 대처하는 처방은 제공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 미국인들 중 다수(38%)가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정의했고, 23%는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묘사했으며, 18%는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특징지었다. 하나님을 믿는 응답자의 14%는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서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동의했고, 5%는 하나님이 “별로” 중요하지 않거나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성경의 하나님이 존재하고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 응답자들” 중 20%만이 “그 분과 친밀하고 상호작용적인 영적 관계를 맺고 있으며, 끊임없이 양방향 소통을 한다”고 답했다. 또 다른 45%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운’ 관계로 분류했으며, 이는 자주 기도하고 “최선이고 옳은 일을 하도록” 그분께 신뢰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 중 11%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리두기’로 규정했고, 18%는 “그분은 존재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분과 개인적이고 상호작용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다”고 말했다.

나머지 7%의 응답자는 그 분이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지 여부에 대해 확신하지 못했으며 “그 분과 자신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른다”고 했다. “성경의 하나님이 존재하고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 응답자” 중 3분의 1(33%)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과 선택에 ‘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정의했고, 응답자 중 3분의 1(33%)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했다. 하나님을 믿는 응답자 중 19%는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때때로’ 하나님의 인도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6%는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지적했으며, 하나님이 미친 영향은 “식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4%는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식별 가능하거나 의식적인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엇을 주었다고 믿는지 물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응답자 대부분은 그 분을 희망(72%), 위로(71%), 평화(65%), 인도(64%), 연민(60%), 기쁨(60%), 자비(58%), 목적(54%)의 근원으로 꼽았다. 적은 수의 응답자들이 하나님을 기적(47%), 기회(41%), 안전(38%), 책임(33%), 힘(31%)의 근원으로 꼽았다.

이미경 기자

美 프랭클린 그래함, 트럼프에게 욕설 자제 부탁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 ⓒBGEA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연설 중 욕설을 하지 말라고 조언한 복음주의 지도자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가, 욕설의 영적·문화적 악영향에 대해 거듭 경고했다.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는 지난 12일(현지시각) X(구 트위터) 계정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마12:36) 성경 말씀과 함께 미 일간지 데저렛뉴스(Deseret News)와의 인터뷰를 공유했다.

그래함 목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속어’(salty language) 사용에 대해 내가 쓴 편지를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해당 편지에서 난 그에게 ‘당신의 이야기는 훌륭하지만, 욕설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선거 유세에서 그래함 목사의 분석이 틀렸다고 언급했다. 그는 “유세 기간에 욕설을 하지 않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하지만 한 시간 혹은 두 시간이 넘게 계속되는 연설에서 적어도 한두 번은 욕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이에 그래함 목사는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욕설 사용을 멈춰 줄 것을 제안한 것은, 그가 욕설로 인해 거칠어진 문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범을 보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됐다”며 “대통령과 대변인단, 즉 그의 마이크는 거대하고 무겁다. 그래서 저는 그를 계속 격려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이 나라의 대통령일 뿐 아니라, 다른 나라, 다른 대통령,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 보고 본받고 싶어하는 세계적인 인물이다. 그 마이크는 많은 것을 의미한다”며 “사회는 인간이 집단으로 조직된 이래 불경건한 언어와 씨름해 왔다. 비속어는 성경만큼 오래됐다. 성경은 우리의 말,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것에 대해 경고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조언을 따른다면, 그는 국민에게 모범이 될 것이고,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는다. 실제로 나는 최근 몇 달 동안 그가 자신의 언어 습관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 달라고 계속 부탁하고 싶다”고 했다.

홍은혜 기자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철야기도회(마지막주) 오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EM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10
3부예배 오전 12:00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6:0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KM 주일예배 - 1부 07:30AM - 2부 09:15AM - 3부 11:00AM
EM 주일예배 - 1부 09:00AM - 2부 11:00AM
새벽예배 - 평일(월-금) 05:00AM - 토요 예배 06:00AM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91765
T. (909)396-4441 www.igmc.org

대예배 11:00 AM
아동부 (1~5학년) 11:00 AM
유아, 유치부 (2~5세) 11:00 AM
영아부 (24개월 이하) 11:00 AM
Youth (6th ~ 12th) 11:00 AM
수요 찬양 예배 수요일 7:30 PM
새벽기도회 화~토요일 6:00 AM
장수영 담임목사
언약 교회
은혜의 말씀, 사랑의 돌봄
1750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622-8815 https://covenantkoreanchurch.com

주일예배(KM) 오전 10:30 중,고등부(Youth) 오전 10:30
주일예배(EM) 오전 10:30 대학청년부(College) 오전 10:30
유년부(K-2) 오전 10:30 한글학교 주일 오후 12:40
초등부(3-5) 오전 10:30 새벽예배(화~토) 오전 6:00
최현규 담임목사
주님 CHURCH
주일예배 401 S. Palm St. La Habra, CA 90631
T. (626)901-919 Email : joonim0623@gmail.com

예배시간 매주오전 11:00
강문수 담임목사
로뎀나무교회
항상 기뻐하라 쉬지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13133 Le Parc #1003., Chino hills, CA 91709
T. (909) 519-0876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주일 1부 오전 9:00 주일학교 오후 12:30
주일 2부 오후12: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1부예배 오전8:00 중고등부(아가페홀) 오전11:00
주일2부예배 오전11:00 영어부예배(믿음채플) 오전11:00
유아유치부 오전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6:00
초등부 오전11:00 Youth 금요모임(금) 오후7:30
유경재 담임목사
나성북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 1부 8:00AM 중고등부 9:30AM/11:15AM
주일 2부 9:30AM 수요기도회 7:30PM
주일 3부 11:15AM 새벽예배 월-토 5:30AM
영아,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손창민 담임목사
에브리데이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 (818) 832-6628 www.churcheveryday.org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어노인팅예배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주일예배 오후 12:30
주일 EM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화요성경공부 오후 7:30
이건창 담임목사
발렌시아 샘물교회
25222 Wiley Canyon RD Newhall, CA 913211
Tel. (661)219-5434 www.sammool.org

밸리채플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영성집회 저녁 7: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주일 3부 영어예배 오후 1:3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T. (818)363-5887
이충환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교육부예배 주일 오전11:00
수요예배 저녁 7:00
박성호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ANC온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bk.com/anc

주일예배 오전 10:40
목요예배 오후 7:00
토요새벽 오전 5:30
지동근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 472-5979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한국어)
주일예배 2부 오전10:15 (한국어, 스패니쉬)
주일예배 3부 오후12:15 (한국어,교육부)
새벽예배(월-토) 새벽 6:00
(7175 W Oquendo Rd, Las Vegas, NV 89113)
강일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 www.fglvchur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주일예배 2부 오전11:30
유초등부 주일 오전11:30 수요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전11:3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임인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3225 S Rainbow Blvd #200, Las Vegas, NV 89146
T. (702) 489-2999 / www.joonganglv.org

주일예배 1부 오전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2:00
EM예배 오전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송삼용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즐거운 제자교회
101 S Rancho Dr, Las Vegas, NV 89106
T. (702) 378-9828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교육부예배 오전11:00
수요말씀기도회 오후 7:00
토요새벽예배 오전 7:00 E. lvkcchurch@gmail.com
이정환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2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 lvkcc.org/lvkcc/index.php

주일낮예배 오전 11:00(설교 동시통역)
주일저녁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조응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 E. drjho@hotmail.com

주일 1부 예배 11:30 AM
주일 2부 예배 1:30 PM
수요예배 7:00 PM
새벽기도 화~토 5:50 AM
임명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우리좋은장로교회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685-2212 , woorijoeunchurch.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크리스천 비지니스

CHRISTIAN BUSINES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0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 429annie@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 입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 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 독일 슈바츠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드림 미디어, 교회 음향 무료 컨설팅
✓ 좋은 소리는 예배에 은혜를 더합니다
✓ 소리는 예배당에 맞춰 세팅해야 합니다
1. 구독 서비스 2. 교회 방문 3. Solo시스템 4. 상담 및 교육
323-643-3033
dmediacontents@gmail.com

다양한 컨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각종모임 주문환영(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엄마의 정성이 한 가득 ~~
미리 주문해 주세요!
고기, 김치만두
찹쌀 오방떡
술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F1 PLUMBING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30불 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NATURE'S TREASURE
Innervis
NUTRITION
건강을 선물하세요
부모님 선물로 딱이네~
기억력 개선
피로 회복
혈액순환 개선
면역력 강화
항산화 작용
5 목 넘김이 쉬운
비타민 D3 5,000 IU
120 베지터블 캡슐 $8.80
D3 5,000 IU 선사인 비타민! 햇빛을 보지 않고, 주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비타민D 결핍을 보충해 줍니다.
6
비타민 C500
180 베지터블 캡슐 $11.99
당신의 건강과 뷰티를 위한 필수 영양소! 필수영양소 비타민C와 칼슘, 그리고 노화 방지, 피부 개선, 항바이러스 등의 효능을 가진 로즈힙까지 함유된 제품입니다.
9
면역력
120 타블렛 $11.99
비타민 C, 비타민 D, 아연, 로즈힙을 사용하여 제조된 강력한 면역력 개선 제품입니다. 신체 면역체계의 다양한 세포 기능을 지원해 줌으로써 면역력을 기본부터 끌어올려 줍니다.
전화구매
213-434-1170

아버지밥상교회 뉴베리 스프링스에 '한나의 집' 마련

L.A.의 홈리스 문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이 때 하나님께서 큰 땅과 집을 주셨습니다.

L.A.와 라스베가스 중간에 위치해 있는 뉴베리 스프링스의 80에이커의 넓은 공간을 홈리스 형제들이 살 수 있도록 기증 받았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홈리스 형제들이 고통은 거할 곳이 없고 쉴 수 있는 집이 없는 것입니다. 20년간 홈리스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 홈리스 형제들이 변화받아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목사로 전도사로 신학생으로 쓰임 받는 것을 보면서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마약에 중독된 한인 청년들이 늘어가고, 정신적 문제를 앓는 50-70대 한인 홈리스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새로운 땅에는 큰 예배당과 집도 두 채나 있으며 고요한 자연 환경은 홈리스들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은 '한나의 집' 입니다. 이곳이 우리 형제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도의 집이 되기 원합니다.

5년간 쓰지 않던 곳이라 수리할 것도 많고 어려움이 있지만 넓은 공간을 보고 기도하며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기가 끊어진 상태이고 우물을 파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셨는데 교회와 협력하여 홈리스가 없는 한인 커뮤니티와 L.A.를 만드는데 함께 기도하며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픽뉴베리 스프링 한나의 집에서 Moody Ko 목사 올림



아버지밥상교회는 뉴베리 스프링에 땅을 기증 받았다. 이곳에 '한나의 집'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홈리스를 섬기는 곳으로 재건하고 있다. 5년간 비어 있던 곳이라 전기가 끊겼고, 우물을 파야 하는 상황이다. ⓒ아버지밥상교회

비전케어 무료 안과 진료

12일(토) 9시-12시 LA영사관 주차장

비전 케어 서비스 웨스트(Vision Care Service West)가 2025년 4월 12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LA 총영사관 주차장에서 무료 안과 진료 캠프를 개최한다. 무료 시력 검사 및 백내장 검사가 제공되며, 백내장이 진단된 경우 추가 심사를 통해 무료 수술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비전 케어는 시력 보호와 회복을 위한 국제적인 의료 봉사 단체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안과 진료를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무료 검사 및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LA 총영사관 주차장은 3243 Wilshire Blvd., LA, CA 90010에 있으며 무료 주차가 가능하다.

이번 행사는 LA 총영사관, LA 다운타운 라이온스, LA 유니파이드 라이온스 & 레오 클럽, 오픈뱅크 ,글로벌 어린이 재단, 해외동포봉사센터(OKTA) 등의 후원과 협력으로 진행된다.

사전 예약 및 문의: 213-545-6071, 213-843-6372, vcswest@gmail.com



민족학교 장학금 신청 4/20 마감

3명에 각 2천 달러 뿌리, 홍익, 드림 장학생

민족학교가 '2025년 민족학교 장학금' 신청을 받고 있다.

민족학교 장학금은 민족학교 창립자 중 한 분이자, 한국 전통문화 유산과 민주화 운동으로 청년들을 일깨우는데 앞장섰던 (고) 정봉 최진환 박사를 기념하기 위해 매년 진행되고 있다.

장학금 신청자격은 한인 또는 아시아 태평양계 출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학생, 대학교 재학생이나 2025년 가을학기에 입학할 학생(졸업 학생이나 대학원생은 해당하지 않음), 유학생의 경우 최소 2년이상 미국에 머물러야 하며, 학원 종료 후에도 미국에 머무를 계획이 있어야 한다. 모든 수상자는 2025년 5월 중순에 열리는 장학금 수여식에 직접 또는 온라인 화상 수여식에 참석해야 한다.

장학금은 정봉 뿌리 장학금, 정봉 홍익 장학금, 드림 장학금(서류미비 학생에게 배정) 세 분야에 걸쳐, 3명의 학생에게 각 2천 달러씩 지급된다. 서류미비 학생만을 위한 특별한 카테고리가 배정돼 있으며 저소득 학생 또는 기타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학생이 우선된다. 마감일은 4월 20일이다.

장학금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추천서와 그 밖의 증빙자료, 에세이도 온라인으로만 접수가 가능하다. 문의는 schloarship@krcla.org로 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민족학교 홈페이지(krcl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선 기자**



민족학교(KRC)는 '2025년 민족학교 장학생"을 모집한다. ⓒ krcla.org/

단신

▶ 미주평안교회 창립 50주년 부흥집회

미주평안교회(임승진 목사)가 노진준 목사(순회 강사, 다니엘기도회)를 강사로 50주년 부흥집회를 3월 28일(금)부터 30일(주일)까지 연다.

▶ 김미경의 행복 찾기 토크 콘서트

굿네이버스 USA(회장 이일하)는 김미경 강사(MKYU) 초청 토크 콘서트를 개최한다.

3/28(금) 7시 에브리데이교회, 3/29(토) 4시 얼바인온누리교회에서 열리며, 티켓은 중앙일보 핫딜(hotdeal.koreadaily.com)에서 구입할 수 있다. 티켓 판매 수익 전액은 가정폭력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지원에 사용된다.

▶ 히즈쇼, 미주 한인교회 위한 여름성경학교 강습회

기독교 콘텐츠 기업 히즈쇼(대표 백종호)가 미주 한인교회 및 글로벌 사역 확대를 위한 VBS(여름성경학교) 강습회 및 프로그램 지원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강습회는 오는 4월 26일 오후 2시(미주 LA 기준), 미국 LA 동양선교교회(담임 김지훈 목사)에서 진행되며 신청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순복음 북미 총회 희년 정기총회

나성순복음교회(진유철 목사)는 3월 24일(월) 오후 7시 30분에 이영훈 목사(순복음세계선교회 이사장)를 초청해 본당에서 총회 희년 감사예배 및 부흥성회를 개최한다.

김한요 칼럼

가고 오는 세대



김 한 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얼마전 모교에 잘 아는 장로님이 당신 아버님이 천국 가셨다고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알려온 소식에 사진 한 장도 같이 첨부되어 있었는데, 저의 아버님과 생전에 같이 찍었던 사진이었습니다. 평소에 가깝게 지내셨던 분이라,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소식과 함께 날아온 사진 한 장으로 천국 가신 아버님이 갑자기 많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한국에서 이른 나이에 장로가 되시고, 이민 오시기 전까지 학교 음악선생님으로 대학 시절부터 교직에 몸 담고 계셨습니다. 세 자녀들 미국에서 교육시키겠다는 이유로 이민을 결단하시고, 필라델피아로 오셨습니다. 살던 집 팔아 밀렸던 건축헌금을 다 드리고 막상 미국은 맨 땅에 헤딩하듯 친척 한 명도 없는 필라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봉제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이후 필라델피아의 할렘가인 로간 지역에서 아이스크림 가게를 인수하셨습니다. 대학교 때 기숙사에서 살던 저는 집에 나올 때마다 가게를 도왔는데, 가게문을 닫던 밤 시간에는 경찰의 경호를 받을 만큼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저희 형제들은 모두 아이스크림 가게 운영하실 때 대학공부를 다 마쳤습니다. 부모님은 나중에 세탁소도 하셨는데, 결국 무리가 되어 몸에 병을 얻고 은퇴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민 1세대로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은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고생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지금의 교회를 지켜온 믿음의 1세대들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1세대가 한 분 두 분씩 천국 가는 모습을 보면서, 1.5세들의 헌신과 덕스러운 섬김이 아쉬울 때입니다. 앞으로 디아스포라 교회의 운명은 잃어 버린 이민 2세대를 다시 찾아오는 것에 달렸다 해도 과장은 아닐 것입니다. 한국어와 영어로 소통이 자유로운 1.5세대들이 2세대와 2.5세대를 안고 가야합니다. '이민교회'의 구태의연한 이미지에서 탈퇴하여 다음 세대와 같이 호흡하며 뛸 수 있는 마음이 열려 있는 1.5세대들이 1세대들의 기본기, 희생정신과 바닥의 섬김으로 '내일 교회'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10년, 20년 후 우리 교회를 생각해봅니다. 온 세대 큐티로 믿음의 대를 이어가며, 내일을 향해 같이 뛰는 코드가 맞는 교회로 더욱 도약할 것입니다. 베델 클래시컬 아카데미 학생들과 교회학교에서 훈련 받은 자녀들이 EM과 2.5세대의 탁월한 인물이 되어 사명을 이어가는 교회로 웅비할 것을 믿습니다.

유일무이하게 이민자들이 늘고 있는 캘리포니아에서, 그것도 가장 살기 좋다는 어바인에서 글로벌 시대에 걸맞게 1세대들이 정착하기 편한 교회가 되어, 맘껏 은사를 발휘하며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며, 성도들의 가장 절실히 영적 필요를 풍성히 공급하며 디아스포라 교회의 영적 자산의 산실이 되고, 세계 선교를 위해 프론트 라인에서서 질주하는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짐합시다. 베델의 영적 유산을 주님 오실 때가지!

말씀과 명상

嘔吐(구토)-사르트르



김 희 보 목사
前총신대학장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요한복음 11:3)

나사로의 누이들은 "병들었나이다"라고만 말하고 도와달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것은 짧은 기도이다. 우리는 길게 기도할 수 있다. 그러나 짧게라도 진실한 믿음으로 우리의 근심거리를 주님에게 고하면 주님은 그것을 들어 주신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요한복음 11:3)

실존의 우연성을 주제로 하여 인간에 대한 메스꺼움과 구역질을 주제로 한 소설이 장폴 사르트르(Jean-Paul Sartre, 1905년 6월 21일-1980년 4월 15일)의 《嘔吐(구토)》(La Nausée, 1938)이다. 앙투아느 로캉탱은 역사상의 인물인 로르봉 후작을 연구하기 위하여 해변의 소읍에 체류하던 어느 날 해안에서 돌을 줍다가 구토증을 느낀다.

'구토'는 희귀한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는 문학과 철학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질 정도이다. 주인공인 서른 살의 앙투안 로캉탱은 수년간의 여행 끝에 부빌(살짝 변형된 르 하브르)이라는 프랑스 항구 도시에 정착한 연구원이다. 그러나 정착이라는 과정은 일련의 괴상한 효과를 낳는다.

로캉탱이 지극히 단순한 일상적 행위에 직면할 때마다, 세상과 그 속에서의 그의 위치에 대한 이해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그는 존재의 합리적인 견고함을 깨지기 쉬운 한 겹의 껍질로 인식한다. 그는 현실의 메스꺼움, 달콤한 역겨움, 원시적인 단계의 현기증을 경험한다. 그는 무생물의 공허한 무관심에 경악하지만, 그가 처하는 각각의 상황이 그의 존재에 돌이킬 수 없는 날인을 찍는다는 것을 인식한다. 그는 스스로의 압도적인 실재에서 탈출할 수 없음을 깨닫는다.

이 작품은 자유와 의무, 의식, 그리고 시간을 섬세한 절제로 탐구하고 있다. 에드문트 후설의 철학과 도스토옙스키와 카프카의 문체의 영향을 받은 '구토'는 20세기 사상과 문화의 가장 중대한 성장이 된 실존주의를 세상에 선언한 소설이다.

사르트르가 '존재와 무(L'Être et le néant)'에서 그의 사상을 구체화하기 전,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의 전율이 증가하기 전, "존재가 본질에 우선한다"는 개념이 최초로 넓은 의미에서 사용된 작품이기도 하다.

로캉탱은 구토증의 정체를 밝히려고 일기를 써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낮에는 도서관에 다니면서 문헌을 탐독하고, 밤에는 카페의 마담과 타성적인 교섭을 가지며 단조로운 나날을 보낸다. 이윽고 공원의 벤치에 앉아 마로니에 나무를 바라보고 있을 때 드디어 구토증의 의미를 깨닫는다.

그것은 이유도 없이 존재하고 있는 존재물의 맛이란 것이었다. 로캉탱은 로르봉 후작의 연구를 집어치우고 그 후부터 역사책을 탐색하지 않고 소설과 같이 존재하지 않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쓰려고 결심한다.

로캉탱의 구토 더 나아가서 죽음에 대한 공포와 전율은 영혼을 부인하는 무신론적 실존주의에 있다. 그것은 마르다가 주님께 대답한 말,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24절)"라는 대답이 말해준다. 즉 "지금 여기에서" 그와 같은 일을 주께서 행하실 것은 믿지 못했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께서,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지금 이곳에서" 부활하게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유신론적 실존주의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11:25,26)"

하늘바라기

고마운 사람 -김은주



슬프게 하는 사람, 고마운 사람

화나게 하는 사람, 고마운 사람

고통을 주는 사람, 고마운 사람

역경을 주는 사람, 고마운 사람

기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

감사로 받으면, 모든 이가 고마운 사람

김은주 시인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뉴질랜드에서 9년간 자비량 선교를 했다. 캘리포니아 프리스티지대학교에서 "선교학적 관점에서 본 선교사 탈진에 관한 비평적 통찰"이라는 논문으로 박사 학위(Ph.D.)를 받았다. 2024년 미주한인기독문인협회 신인상을 수상했으며 「울타리글벗문학회」 회원, 「미주한인기독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5 미주기독 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 세계 최고의 교수진
•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 실용적인 사역 대비
• 오프라인 수업
• 미국 비자 (I-20) 발급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 562-903-4705

미 성 대 학 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정회원
•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목회학박사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철학박사(Ph.D)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인터넷 홈페이지 www.mbts.edu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eway., Kansas City, MO 64118
Tel.(816)414-3754 Email:ks@mbts.edu

SINCE 1977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의 새로운 이름
* 전세계 온라인으로 온 캠퍼스와 실시간 수업가능 *
• 1977년 설립된 이후 지켜온 선교 지향적 교육을 토대로 다양하고 폭넓은 미래지향적 교육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 최첨단 효율적인 온, 오프라인, 블랜디드 교육 플랫폼 제공
• 과정에 따라 영어, 한국어, 중국어 프로그램 (학사, 석사, 박사)
• SEVIS I-20 발행 |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 | 미국연방 인가된 학교
• 홈페이지 www.ptsa.edu | 입학문의 562.926.1023 (EXT 300)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213)388-1000 Fax:(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 음 대 학 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준
▪특 전 :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714)527-0691(0692) Fax:(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909- 687-1649 / KEB@GS.EDU
WWW.GS.EDU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UNIVERSITY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626)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요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is.org
학교주소 | 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 aurahelio@gmail.com
전화 | 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www.itsla.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 MATS 선교학 석사 ▪ M.Div 목회학석사
▪ Th.M 신학석사 ▪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626) 653 9547 EXT.# 112/admin.kor@itsla.edu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귀생당®

세상을 더 아름답게 볼 수 있게-
당신의 소중한 눈을 건강하게 지켜드립니다!

KISEIDO

EYE NOON EYE

믿음의 이름, 귀생당에서 만든 이시대 최고의 눈 건강 영양제!

좁아진 시야, 흐려진 시야로 고생하는 당신을 위한 최고의 눈 영양제!
[귀생당 아이 눈 아이]는 슈퍼푸드라고 불리우는 청정 열매인 **마퀴베리의 안토시아닌과 델피니딘, 루테인, 지아잔틴** 성분을 함께 구성하여 현대인의 눈 건강의 최적화와 눈 건강에 더욱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새롭게 나온 눈 영양제입니다.


망막색소 재활성화


시력기능 향상


야간시력 개선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예방

하루에 2캡슐! 아이 눈 아이로 더 밝은 세상을 만나세요!

아이 눈 아이의 효능 효과

- 눈 기능 활성화, 눈 건강유지 및 보호
- 장시간 컴퓨터, 스마트 폰, TV, 등 장시간 사용으로 인한 눈의 피로 개선
- 백내장, 녹내장, 근시 및 AMD(황반변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
- 활성산소 완화
- 혈류 개선, 미세혈관 순환증가
- 심혈관, 뇌혈관 순환 도움
- 알츠하이머, 치매, 집중력, 인지능력 향상
- 장내 효소 증가
- 소화기능 개선
- 빈혈, 간 기능 개선
- 면역체계 향상

주요성분 안토시아닌, 루테인, 지아잔틴, 아스타잔틴, 델피니딘, 프로안토시아니딘, 피페린, 빌베리

• SINCE 1975 •
귀생당
KISEIDO U.S.A., Inc

1.800.909.0001 www.kiseidousa.com

These statements have not evaluated by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to diagnose, treat, cure or prevent and disease.

신학 칼럼

탈봇신학대학원의 어제 · 오늘 · 내일(1)



에드 스테저 교수
탈봇신학대학원 학장

창조 이야기는 하나님의 동산에 두 그루의 나무이야기로 시작됩니다. 하나는 생명나무이고 다른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창 2:9). 인간은 생명 나무를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금지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세상에는 죄가 들어 왔고 세상은 저주를 받아 창조 질서의 훼손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이야기지만 동시에 회복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다시 생명나무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악과가 창조 질서의 훼손을 가져왔다면 생명나무는 창조 질서의 회복을 보여줍니다. 회복의 모습이 계시록에는 그 생명나무에 열두 가지 열매를 맺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계22:2).

나무의 메타포는 창조와 회복 사이에 소소히 등장합니다. 시편 1편에는 의로운 사람의 삶의 메타포로서 다시 한 번 나무가 등장합니다. 그 나무는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는 나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 의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가장 절정의 나무 메타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달린 나무의 메타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 이른 십자가라는 나무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나무의 메타포는 세계 복음주의에서 Talbot School of Theology의 역할을 매우 효과적으로 묘사합니다. 뿌리에서 열매에 이르기까지 Talbot은 복음주의 세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다해 왔고 그 역할로 인한 열매는 지속적인 모습으로 드러나 왔습니다. 오늘날 복음주의권 안에서 Talbot의 역할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복음주의권에서 복음이 탈색되고 있는 현 시점에 복음의 온전성을 온 몸으로 살아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Talbot은 이 세계가운데 복음주의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사역에 더 깊게 뿌리를 내리고, 더 넓게 가지를 펼치고자 헌신하고 있습니다.

복음주의의 뿌리

1739년 가을, 유명한 복음 전도자 조지 휫필드가 펜실베이니아 네샤미니 마을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미 영국과 미국 식민지 전역에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장로교 지도자였던 윌리엄 테넌트의 초청을 받아 그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테넌트는 1차 대각성 운동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과 여러 젊은이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학교를 준비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조롱하듯 그것을 "통나무 대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휫필드는 그와는 달리 다음 같은 기록을 남깁니다. 사람들은 젊은이들이 공부하는 이곳을 조롱하듯이 낮춰 부르지만 이곳은 대학입니다. 이 장소는 통나무로 지어진 길이와 폭이 20피트 정도 되는 건물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옛 선지자 학교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곳에서 최근에 예수님의 부름을 입은 7-8명의 목사가 파송을 받았습니다.

이 "통나무 대학"은 대각성 운동 기간에 초기 복음주의자들이 교육에 어떤 가치를 두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윌리엄 테넌트의 아들 길버크와 같은 젊은이들은 이 소박한 곳을 떠나 1차 대각성 운동을 주도하였습니다. 그 당시 많은 학교들이 복음주의적 신념 아래 출범하였습니다.

보수적 복음주의를 이어받은 탈봇

바이올라 대학교와 탈봇 신학교는 보수적 복음주의 신학의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학적 근원이 성경의 무오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이올라는 1908년 창립 이래로 'Jesus Saves' 이 두 단어에 집중해 왔습니다. 중생의 복음은 휫필드, 테넌트, 웨슬리와 같은 설교자들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대각성의 여러 교파적 뿌리 중 가장 좋은 것만을 받아들여 왔습니다. 예컨대, 휫필드는 성공회, 감리교, 장로교, 가난한 탄광 광부, 부유한 귀족에게 설교하였습니다. 탈봇 역시 복음주의 신앙에 내재된 다양한 전통, 사상, 지혜를 포용합니다.

탈봇은 보수적 복음주의 신학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잔 운동과 같은 운동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세계성을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로잔의 북미 지역 책임자로서 나는 빌리 그레이엄과 존 스토트의 신앙과 신학적 입장이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의 확산에 기여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레이엄과 스토트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 로잔 운동을 벌였습니다. 로잔 운동은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 모든 사람과 장소를 위한 제자를 만드는 교회, 모든 교회와 분야를 위한 그리스도인 지도자, 그리고 사회 모든 영역에서 그 나라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인재들과 아이디어를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로잔은 많은 운동이 복음적 신념과 복음적관심에서 벗어나는 것에 반해하였습니다.

탈봇은 1)성경적 사고, 2)영적 변화, 3)복음의 실천과 선포에 중점을 둡니다. 이 세 가지를 각각 강조하면서도 통합적으로 이해할 때 복음적 확신은 더욱 확고해 집니다. 탈봇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초교파 신학교이지만 지난 해 그 어떤 신학교 보다 더 많은 교수진이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에 참여하여 학문적 업적을 보였습니다. (계속)

이주형의 시간의 지문

생각은 무엇인가요? – 데카르트의 오류 (1)



이 주 형 대표
CM 홀딩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Cogito, ergo sum)의 데카르트의 오류

위대한 합리주의(Rationalism)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René Descartes)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명언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1) 순환 논리: "나는 생각한다"를 전제로 "고로 존재한다"를 도출하는데, 이는 이미 자기 존재를 전제하는 순환 논리에 빠질 위험이 있다.

(2) 자아 중심성: 자신의 존재만 확실하다고 주장하며 외부 세계와 타인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

(3) 감각의 신뢰 문제: 데카르트는 감각을 의심했지만, 사고(생각)하는 행위 자체도 기만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4) 존재 개념의 협소함: 존재를 사고하는 능력과 동일시하는데, 이는 사고하지 않는 존재(예: 식물, 무의식적 인간)의 존재를 부정하는 오류를 초래할 수 있다.

(5) 과도한 이원론: 정신과 물질을 완전히 분리하여 실체로 구분했지만, 이는 현대 과학에서 신경과학과 의식 연구를 통해 점점 반박되고 있다.

그렇다면 생각이 무엇인가?

이 답은 어떤 과학자도 철학자도 신학자도 정확이 논리적으로 설명할수 없는 신의 영역이다. 생각을 논리적으로 안다면 드디어 우리는 Ai에서 훨씬 진화된 사람과 같은 AGi를 만들수 있을 것이다. (아래설명 참조) 우리는 왜 생각을 할까?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이 질문은 철학적이면서도 과학적인 탐구를 필요로 한다.

특히 양자 물리학과 DNA의 코딩 원리를 통해 인간의 사고 과정이 어떻게 설계되었는지를 분석해 보면, 우리의 존재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정교한 설계의 산물임을 깨닫게 된다.

1. 양자 물리학과 생각의 시작

고전 물리학에서는 우리가 인식하는 물질 세계가 확고한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양자 물리학은 입자의 상태가 관측되기 전까지 불확정적이며, 인간의 의식이 개입될 때 입자의 상태가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이다. 인간의 뇌는 단순한 전기 신호가 오가는 기관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을 탐색하며 실재를 창조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는 무언가를 생각하기 전까지 그것이 확정되지 않으며, 생각을 통해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는 마치 양자 물리학에서 측정 행위가 입자의 상태를 결정하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2. DNA 코딩은 확률적으로 우연히 생길수 없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모든 프로그램은 특정한 '코드'에 의해 실행된다. 이는 명확한 시작과 끝을 가지며, 오류가 발생하면 프로그램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다. 인간의 DNA 역시 마찬가지이다. DNA는 단순한 유전자 정보의 집합이 아니라, 마치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A(아데닌), T(티민), C(시토신), G(구아닌)이라는 네 가지 염기로 이루어진 코드를 통해 생명 활동을 지휘한다.

더 놀라운 점은, DNA에는 시작과 끝을 알리는 특정 코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AUG는 단백질 합성의 시작의 선언한다. UAA, UAG, UGA 단백질 합성의 종료코드이다. 이는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start'와 'end' 명령어가 있는 것과 동일하다. 모든 프로그램은 시작과 끝을 선언하지 않으면 프로그램으로의 수행이 불가능하다. 이것처럼 인간의 유전자는 철저한 설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단순한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과연 우연이라면 이런것이 생성되기 위해 어떤 확률이 존재할까? 그리고 이 단백질 합성의 산물들이 생각을 한다면 얼마정도의 확률이 필요한가?

답은 무한대이며 무한대라는것은 불가능하다란 뜻이다. 이는 정교한 계획과 목적을 가진 창조의 증거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인간의 설계원리가 하나님께서 직접 프로그래밍하신 코드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암시한다. (계속)



MOTHER'S DAY PREMIUM TROT DINNER SHOW

프리미엄 트롯 디너쇼

마더스데이를 맞아 미스 & 미스터트롯 스타들과
함께하는 감동의 디너쇼를 부모님께 선물하세요~!



강예슬 미스트롯 1

나태주 미스터트롯1

김의영 미스트롯 2

2025년 5월 11일 오후 6시 (입장 | 오후4시)
Taglyan Complex (엘에이 최고의 이벤트 홀)

트로트 디너 콘서트 티켓 선물 이벤트

[이벤트 안내]

"우리 부모님을 꼭 이 디너쇼에 모시고 싶은 이유" 사연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4분께 디너쇼 티켓**을 **선물**로 드립니다.

- 접수 마감: 4월 1일
- 당첨자 발표: 4월 4일(기독일보)
- 사연보내실곳 : kticketbox@trinity-ms.com

지금 사연을 보내시고, 부모님께 잊지 못할 하루를 선물하세요!

문의 | kticketbox@trinity-ms.com

TRINITY MS Kticketbox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마르크스에서 마르쿠제까지

세상 바꾸려는 비판 이론, 세상 바꾸는 복음으로 바꾸자



세상을 바꾸려는 비판 이론

칼 트루먼 | 윤석인 역 | 부흥과개혁사 | 267쪽 | 22,000원

비판 이론은 다양한 양상을 지니고 있다. 그 복잡성과 미묘한 차이는 이 사상에 접근하려는 이들에게 도전이 된다. 오늘날의 비판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기원과 발전과 결과를 이해해야 한다

헤겔과 마르크스에서 코르쉬와 루카치, 프랑크푸르트학파, 빌헬름 라이히와 헤르베르트 마르쿠제에 이르기까지 트루먼은 비판 이론의 주요 인물에 초점을 맞추어, 그 철학적 뿌리부터 현대의 문화적 열망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역사적 맥락 속에서 파악하여 비판 이론이 다양한 운동, 진화, 차이, 영향을 통해 발전해 온 과정을 추적한다

서던침례신학교 총장인 앨버트 몰러는 이렇게 평가했다: "칼 트루먼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를 발명해야 했을 것이다."

재치 있고 탁월한 평가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트루먼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상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하여 발전되어 왔는지 추적하고 연구하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 싶기 때문이다. 트루먼은 현재 그로브시티대학 성경학 및 종교학 교수다. 그가 쓴 〈신좌파의 성혁명과 성정치화〉는 교회가 오늘날 시대 정신이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분명한 관점을 제시하는 데 성공했다(부흥과개혁사, 2022). 이 책은 〈이상한 신세계〉라는 요약본으로도 국내 소개됐다(부흥과개혁사, 2022).

이번에 같은 출판사에서 출간한 〈세상을 바꾸려는 비판 이론: 마르크스에서 마르쿠제까지〉는 갑자기 모든 분야와 영역을 장악해 버린 것 같은 '비판 이론(Black Lives Matters 등이 그 예시가 될 것 같다)', 그 배후에 어떤 사상적 배경이 흐르고 있는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고발한다.

결론을 먼저 밝히면, 트루먼은 비판 이론을 모두 부정하거나 배척하지는 않는다. 그들이 지적한 자본주의나 사회주의의 부작용, 즉 인간을 사물화하고 소외 현상이 일어나는 등 인간을 인간으로 존중하고 배려하지 않는 여러 사상적 문제를 기독교는 경청하고 동의하고 복음으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트루먼은 비판 이론의 방식은 철저하게 반대한다. 그들이 지적한 것들이 문제이지만, 그들이 이를 해석하고 진단하고 해결책을 내민 것은 역사가 증명한 것처럼 오히려 더 극심한 문제의 증폭을 가져다 준다고 평가한다. 트루먼은 사실 비판 이론은 현재 체제를 무너뜨리는 데만 관심이 있지, 회복 또는 개선하는 데 관심이 없다고 비판한다. 비판 이론은 무엇이 진리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다만 지금의 기득권을 요동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면 그것이 바로 진리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스스로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남성이 여성 스포츠 경기에 참가해 우승하고, 그것이 불공정하다고 모두가 인정하면서도 '기울어진 세상'을 뒤흔드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어쩌다 이런 '이상한 신세계'가 출몰한 것일까? 트루먼은 칸트로 거슬러 올라간다. 칸트의 업적은 진리와 그 진리를 이성으로 아는 것을 분리시켰다는 데 있다. 라디오에서 들은 이야기를 각각 다르게 기억하는 것처럼 진리는 듣는 이가 기억하는 것이고, 결국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유일하게 진리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이성이다. 그래서 칸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고 말했다. 칸트는 그렇게 객관적인 진리를 알 수 없는 것으로 만들고, 주관적인 진리만을 효력이 있는 것으로 취급하게 만드는 데 성공했다.

트루먼은 이어서 헤겔을 언급하는 데, 헤겔은 그 확실한 것처럼 보였던 주관적인 지식도 믿을 수 없다고 말한다. 세상의 체제와 이념, 역사와 배경이 각자의 이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생각은 달라진다. 같은 시대라도 한국과 네팔에서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를 수밖에 없다. 헤겔은 그렇게 개인의 이성이 주장하는 것도 불확실한 것으로 만들고, 결국 애매모호할 수도 있는 시대, 문화, 배경, 정치 등이 진리를 규정하거나 억압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데 성공했다.

칸트와 헤겔의 영향 아래 마르크스는 경제를 가장 큰 비판 대상으로 삼았고, 이후 코르쉬와 루카치, 프랑크푸르트 학파, 라이히, 마르쿠제는 경제 외에 여러 요인을 비판 대상으로 확대하여 적용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요 18:38)?"라고 물었는데, 칸트-헤겔의 반석 위에 마르크스에서 마르쿠제까지 비판 이론의 벽돌을 쌓아 올린 이들의 대답은 결국 "알 수 없지만, 지금 경제·문화·사회 등을 장악한 기득권이 진리를 왜곡하고 있다"가 되고 말았다.



책의 저자 칼 트루먼(Carl R. Trueman). ⓒETS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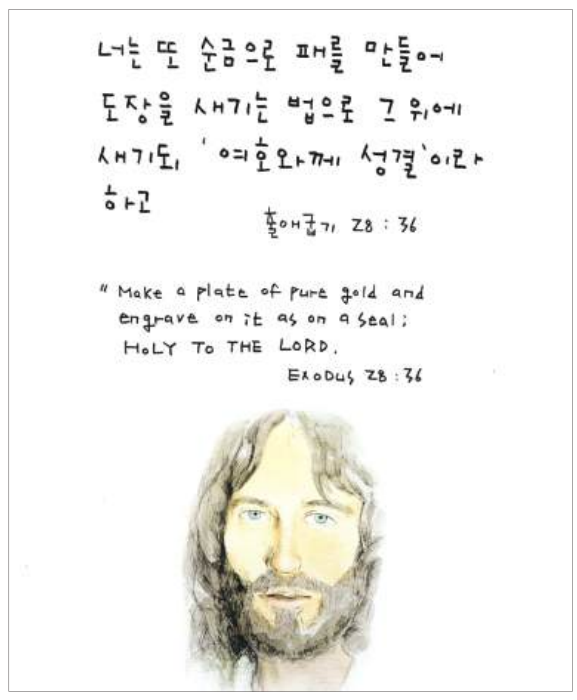
누구도 객관적 진리를 알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전파할 수 없도록(그것 또한 기득권의 논리를 따르는 얘기라고 쉽게 취급하기 때문에), 세상은 비판 이론만이(단지 비판의 기능만 있지만) 모두가 수긍해야 하는 절대 진리인 것처럼 여기는 신세계가 되었다.

칼 트루먼은 이 책에서 여러 번 기독교의 관점을 제시하고, 또 마지막 장에서 기독교의 시대적 사명을 제안한다. 기독교는 진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다.

트루먼은 기독교가 그 복음을 정확하고 담대하게 변증하는 것뿐 아니라 살아내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상적 세상을 꿈꾸지도 못하고 비판 정신으로만 가득 찬 불쌍한 영혼들에게, 천국을 꿈꾸게 하는 사랑으로 가득 찬 공동체를 보여주라고 한다. 그래서 기독교라면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겠다는 믿음을 주라는 것이다.

조정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 금주의 말씀 묵상 | 김영희 권사





[서성록, 한 점의 그림] 네덜란드 아트 트립 1

플랑드르와 북부 네덜란드 예술의 보고(寶庫), 마우리츠하우스

헤이그 호프베이베르 연못에 자리
브뢰헬, 포터, 루벤스, 렘브란트, 루이스달, 베르메이르, 홀바인 등 위대한 미술가들 명작 볼 수 있어

아침 일찍 암스테르담 중앙역에서 도시와 도시를 잇는 고속열차인 '인터시티' 기차에 몸을 싣고 댄 하그(헤이그)로 향했다.

댄 하그 중앙역에서 내려 버스로 갈아타고 몇 정거장 못가 하차한 후 천천히 거리를 걷다 보니 호프베이베르 연못가에 자리한 고풍스런 마우리츠하우스(Mauritshuis)가 눈에 들어왔다.

마우리츠하우스는 우리가 예상하는 웅장한 미술관이 아니다. 아담하지만 수준 면에서는 세계 굴지의 미술관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 이곳은 빌럼 왕가가 소장했던 네덜란드 황금시대 미술을 관람할 수 있는 최적의 문화공간이다. 피터 브뢰헬, 파울러스 포터, 루벤스, 렘브란트 반 레인, 야곱 반 루이스달, 요하네스 베르메이르, 한스 홀바인과 같은 네덜란드 및 플랑드르 미술가의 명작들을 볼 수 있다. 프랑드르와 북부 네덜란드 지역의 뛰어난 작품이 먼 길을 달려온 여행객의 피로를 잊게 해주었다.

마우리츠하우스는 나사우 시겐의 백작이었던 요한 마우리츠(Johan Maurits, 1604-1679) 이름을 따서 명명된 곳이다. 건물은 암스테르담 왕궁을 설계한 반 캄펜(Jacob van Campen)에 의해 건축되었다. 그 건물이 현재의 마우리츠하우스의 모태가 된 셈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저택은 1704년 큰 불이 나는 바람에 골조를 제외하고는 전소되어 전면적인 개조가 불가피했다. 건물은 천장과 벽난로를 포함하여 새로운 인테리어로 말끔히 단장되었고, 네덜란드 정부가 1820년 이곳을 빌럼 왕가의 미술관으로 운영하기까지 주정부의 영빈관으로 사용되었다.

마우리츠하우스가 미술관으로 운영 방침을 정해 문을 연 것은 1822년이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물론 왕가의 좋은 컬렉션이 있었기 때문이다.

빌럼 5세(William Ⅴ, 1748-1816)가 지녔던 작품들이 핵심을 이루었지만, 대부분의 17세기 회화는 선조인 프레더릭 헨드릭(Frederik Hendrik)과 부친인 빌럼 4세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거나 프랑스 침공으로 흩어진 것들을 재구입한 것이었다.

빌럼 5세는 유년 시절부터 예술에 관심이 많았고 수집에도 열심이어서, 그가 마우리츠하우스를 오픈한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그가 구입한 것중에는 얀 브뤼헬(Jan Brueghel)과 파울 루벤스(Paul Rubens)의 〈타락에 빠진 에덴동산〉(The Garden of Eden with the Fall of Man, 1615)이 있다.

창세기 장면을 테마로 한 이 작품은 인체 묘사에 뛰어난 루벤스가 아담과 하와를, 그리고 정교한 묘사에 탁월한 솜씨를 지닌 브뤼헬은 꽃과 풍경, 동물들을 각각 그렸다. 1766년 빌럼 5세가 구입한 이 작품은 보존 상태가 좋아 오늘날까지도 선명한 색상과 디테일을 감상할 수 있다.


마우리츠하우스에서 '델프트 풍경'을 감상하는 방문객들.


요하네스 베르메르, 델프트 풍경, 캔버스에 유채, 97x116cm, 1660-1661, 마우리츠하우스.

두 대가는 〈에덴동산〉을 모티브로 수십 점을 제작했는데, 그만큼 주문이 폭주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작품에서는 인간과 함께 여러 동식물들이 등장한다. 아담과 하와 주위에 강아지, 토끼, 공작, 원숭이, 다람쥐, 새가 등장하고 배경에는 낙타, 사자와 호랑이, 사슴, 물고기, 천연 오리, 들소, 백마, 하늘을 나는 새 또는 나뭇가지에 앉은 새 등이 출현한다. 인간의 불순종만 없었더라면 세상은 실로 다채롭고 아름다운 생명체들의 어우러짐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온갖 피조물들이 즐거움을 누렸으리라는 것을 상상하게 만드는 작품이다.

빌럼 5세가 구입한 것은 아니지만 요하네스 베르메이르(Johannes Vermeer)의 〈델프트 풍경〉(View of Delft, 1660-1661) 역시 마우리츠하우스가 자랑하는 소장품 중 하나다. 네덜란드 황금기 유명한 풍경화로 손꼽히는 이 작품에서 우리는 빛과 그림자의 유희, 흐리지만 빛나는 장엄한 하늘, 그리고 건물이 물에 반사되는 모습 등을 볼 수 있다. 마을 풍경은 수백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베르메이르의 덕분에 찬란한 자태를 잃지 않고 있었다.

어떤 움직임도 없는 것 같지만 부드러운 미풍은 물 표면을 살짝 흔들어놓고 있으며, 마을 위로 높이 떠다니는 구름에도 햇살은 교회의 첨탑과 지붕을 비추고 있다. 하늘과 마을의 강한 대비는 베르메이르가 구름 아래 마을로 우리의 시선을 이끌어줌으로써 풍경의 깊이를 더해준다. 마을을 모티브로 한 풍경화에서 우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빛을 향하고 있는 장면 속으로 이끌리게 된다.

빌럼 5세는 소장품을 모으는 것에도 관심이 있었지만, 자신의 컬렉션을 일반에게도 공개하는 데도 적극적이었다.

네덜란드 최초의 공공 미술 전시장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빌럼 5세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뒷받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정해진 시간에 대중에게 소장품을 공개하는 식이었지만, 그때의 문화로 보아 충분히 의미가 있는 시도였다. 이 정책은 네덜란드 미술관 역사상 이정표가 되었다.

빌럼 5세의 뜻을 이어받아 왕 빌럼 1세(King William Ⅰ, 1772-1843)는 1816년 소장품 모두를 국가에 기증하였다. 이로써 컬렉션의 권리는 로얄 회화 갤러리로 이전되었다. 이후 미술관 신임 관장이 취임하면서 꾸준한 진척을 보였는데, 스틴그라흐트 반 우스트카펠레 (Steengracht van Oost-kapelle) 시대에는 120여 점이던 빌럼 5세의 회화작품을 250점으로 확충해 소장품의 범위를 넓혔는가 하면, 아브라함 브레디우스(Abraham Bredius), 빌럼 마르틴(Willem Maarten) 등으로 이어지면서 오늘날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강대국에 둘러싸여 매번 고군분투하는 상황에서도, 종교개혁과 프로테스탄트의 영향으로 형성된 네덜란드 회화를 접할 수 있는 것은 프로테스탄트 미술을 연구하는 필자로서는 뜻깊은 일이었다.

20세기 초 마우리츠하우스를 찾은 마르셀 프루스트가 밝힌 소감은 익히 알려져 있다. "'델프트의 풍경'을 본 이래로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1921. 5. 1)

서성록 명예교수(안동대)



2년 전 '애즈베리 부흥' 참여 · 목격자의 직접 증언 보고서

Z세대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부어주시는 부흥의 세대
사라 토마스 볼드윈 | 남성혁 역 |
다음시대연구소 | 296쪽 | 20,000원

"2023년 2월 8일, 애즈베리대학교의 정규 채플 예배 후 몇몇 학생들이 자리에 남아 머물며 성령께서 불꽃을 일으키셨습니다. 이 불꽃은 전 세계에서 주목하는 큰 불길로 번져 갔습니다. 애즈베리 캠퍼스에서 대학생들이 성령의 새로운 움직임을 경험하며 시작된 이 사건은 자발적으로 폭발하며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미국 켄터키주 윌모어(Wilmore) 애즈베리대학교(Asbury University)에서 성령님의 기름부으심으로 학생들이 기도와 찬양에 전념했던 일을 기억하는가? 오래 전처럼 느껴지지만, 코로나19가 막바지이던 2023년 2월, 불과 2년 전 일이었다. 책으로만 만날 수 있던 '부흥의 역사'가 오늘날 재현된 것도 놀라웠지만, SNS 등 시대적 도구를 통해 전 세계로 순식간에 알려져 주변에서 애즈베리로 모여들고, 이를 경험한 이들이 각자 처소로 돌아가 '기도의 불길'을 이어가는 모습도 인상적이었다.

〈부어주시는 부흥의 세대〉는 2023년 2월 8일부터 24일까지 애즈베리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직접 목격한, 애즈베리대 사라 토마스 볼드윈(Sarah Thomas Baldwin) 학생생활부총장의 현장 보고서 또는 일기다. 채플 총괄 담당인 그는 당시 부흥을 이끌던 핵심 사역팀을 공동 주재하고 독려하는 역할을 맡았다.

저자는 2월 8-24일, 최소 5만 명이 300곳 이상의 대학과 30곳 이상의 주, 13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윌모어로 모여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했다고 말한다. 저자는 이를 "압도적인 세상의 영향력 아래 있던" Z세대를 하나님께서 '사랑의 홍수'로 흔들어 깨우신 사건으로 평가한다.

"Z세대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 아래 머물며, 예수님의 임재를 압도적으로 경험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을 느꼈습니다. 대학생들은 우리를 하나님 사랑의 식탁으로 이끌었습니다. … 예수님에 대한 Z세대의 응답은 진지하지 못하고 오락적인 '믿음'과 정치적인 '믿음'으로 양극화되던 교회를 바로잡는 하나의 새로고침처럼 보입니다."

부흥이 시작되던 2월 8일 채플 이후 휴즈(Hughes) 강당에서의 일들을 그는 또렷이 기억했다. 낮 12시 8분이었다. "학생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나도 그들과 함께 목소리를 더했다. 행정 회의에 가야 할지, 아니면 이곳에 남아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계속 드릴 수 있을지 고민이 들었다. 아직 처리해야 할 일들이 내 머릿속을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해야 할 업무들의 압박이 줄줄이 떠오르지만, 동시에 성령의 부드러운 초대가 나를 붙잡아두었다. '조금만 더…', 나는 이 순간의 평화가 마치 따뜻한 이불 속에 있는 것처럼 나를 감싸는 것을 느꼈다."

교실 밖에서 학생들이 경험하는 모든 것을 지원하고 자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던 그는, 채플이 끝난 후 다시 돌아와 제단 쪽에서 예배드리는 학생들을 떠날 수 없었다. 눈을 감고 찬양에 영혼을 맡기자, 얼굴에 긴장이 풀렸고 매일 반복되던 두통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 예배에 몰입해 있던 예배 코디네이터 매들린 블랙(Madeline Black)의 얼굴도 빛나고 있었다.

저자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청년들에게 일어난 것에 주목한다. "대학생들은 누구보다 하나님께 더 쉽게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을지 모른다. 그들은 진정한 관계에 마음을 열고, 성령의 인도를 기꺼이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있기에, 종종 하나님의 도구가 되곤 한다. 성장 과정에서 드러나는 공간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깊이 개입하실 기회를 제공한다. … 하나님은 젊은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습관이 있으시다."

오후 3시 30분, 학교 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온 사라 볼드윈 부총장은 휴즈 강당 앞 계단에서 케빈 브라운 총장과 마주쳤고, 그들은 함께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두 시간 사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학생과 교수, 교직원들이 150여 명까지 늘었다. 오전 채플에서 찬양을 인도한 다민족 가스펠 찬양팀은 여전히 찬양하고 있었다.

"뭐라고 말로 설명할 수 없었다. 더 많은 학생이 제단 앞으로 나왔다. 그들은 이마를 난간에 대고, 어깨를 들썩이며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이제 학생들이 예배당 중앙 부분을 가득 메웠다. 일부 학생들은 손을 들었고, 일부는 손바닥을 위로 향한 채 서 있었으며, 다른 학생들은 나처럼 가만히 서서 모든 것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다. 성경과



자리가 부족해 야외에서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

노트가 일지처럼 펼쳐져 있었다. 몇몇 학생들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영이 공간을 감싸고 있었고, 그 초청의 느낌이 모두에게 전해지고 있었다."

오늘은 뭔가 다르다고 모두가 느꼈다. 강당에 있던 사람들 모두 하나님의 사랑이 그 공간 안에, 그리고 각자의 마음속에 강하게 밀려옴을 느꼈다. 예배는 저녁까지 이어졌고, 참석자 수는 점점 늘어났다.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애즈베리대 학생들이 인스타그램과 틱톡에 그 영상을 올리자, 주변 대학 학생들까지 찾아오기 시작했다. 켄터키대학교(University of Kentucky), 인디애나웨슬리안대학교(Indiana Wesleyan), 이스트켄터키대학교(Eastern Kentucky University), 오하이오크리스천대학교(Ohio Christian) 등에서다.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마이크 앞에서 간증을 시작했다. 어깨를 맞대고 '기도의 원'을 형성한 학생들도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나누는 학생들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다.

"여기에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데이비드 토마스의 이 말이 원 안에서 메아리쳤다. 영적 각성 신학자이자 부흥 역사 연구자인 토마스는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에 마음과 생각을 열라"고 격려했다. 사라 부총장은 1970년에 애즈베리 부흥 경험을 나눠주던 목소리가 떠올랐다고 한다.

"저항할 수 없는 이끌림."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려고 뒤쪽 난방기구를 꼭 붙잡고 있어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애즈베리에 부흥을 가져오시기를 기도하며 매일 오전 8시에 1년 동안 기도했어요."

행정 책임자로서 걱정도 됐지만, 사라는 휴즈 강당을 밤새 열어두겠다고 발표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멈추거나 제한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성령님의 초대에, 수많은 성경의 기록처럼 "네(YES)"라고 대답해야 했다. 성령님의 역사는 부드럽고, 초대하며, 사랑과 친절로 가득하고, 거의 저항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배는 밤새 이어졌고, 다음 날, 그 다음 날에도 계속됐다. 학생들은 앞다퉈 죄를 고백하고, 고통을 나눴으며, 다른 학생들을 위해 기도했다. 캠퍼스와 인근 학교에서 더 많은 학생들이 도착했다. 그 이후, 2주간 계속된 성령의 역사는 책을 통해 생생하게 만나볼 수 있다.

저자는 "하나님 사랑의 불길은 애즈베리 캠퍼스에서 Z세대를 위해 타올랐고, 우리 모두의 마음에 성령의 불꽃이 타올랐다. 비판자들은 이번 부흥의 진정성과 자발성을 의심하려 하지만, 그날들을 경험한 이들에게 이러한 주장들은 어리석게 여겨질 뿐(고전 1:20)"이라며 "우리는 스스로 성령의 불꽃을 붙일 수 없음을 안다. 하나님의 사랑은 높고 밝게 타올라 2023년 2월 23일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지금도 여전히 타오르고 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불꽃으로 자신의 촛불을 밝히고 있다"고 고백한다.

부흥 1년 후 쓴 글에서 저자는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는 '그래서, 뭔가가 변했나요?'이다. 진정으로 우리는 부흥을 경험하고 있다. 학생들은 자주 채플 이후에도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해 남아 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일상이 됐다"고 기록했다. 또 "나는 달라졌다. 나의 영적 온도는 높아졌다. 나의 소명의식은 더 깊어졌으며, 복음을 전하려는 긴급함은 더 강렬해졌다. 복음서 이야기가 내 눈앞에서 살아났고, 나는 그 최전선에서 그것을 목격했다. 어찌 변화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되묻고 있다.

추천사에서 케빈 J. 브라운 애즈베리대 총장은 "애즈베리 부흥에 대한 상당수 논평은 직접 경험하지 못한 목소리들로부터 나왔다"며 "이 책에서는 독자들이 역사적 16일 동안의 아름다움, 복잡함, 갈망, 평화, 변화를 생생하게 기록한 1인칭 이야기를 경험할 수 있다. 21세기에 본 적 없는 영적 전개를 가능하게 한 거룩한 상상력과 이타적 환대의 상세한 묘사를 담고 있다"고 전했다. 원제 'Generation Awakened: An Eyewitness Account of the Powerful Outpouring of God at Asbury'. 이윤준 기자



THYKINGDOMCOME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MISSIONS
CONFERENCE

APRIL
4 - 6
FRI SAT SUN

새누리교회 본당

제 1 회 새누리교회
선교대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선교대회를 개최합니다.

T국
조요한/서향기
한길/마음
김진영/김은경
안바울/박조디
장과장/주열매
베드로스/한단

일본
송효식/송지연
강민숙
김영길

I국
김믿음/민샘물
조슈아/로이스

미국
김태일 (군)
김정기 목사 (밀알)

B국
김길수/길순

몽골
김진리/은혜

태국
오석/오수미

D국
이세아

E국
소아드

인도
김덕래/초미성
손미애
라즈쿠마

말라위
마이클
워싱턴

캄보디아
황현주/황순현

필리핀
김다니엘

남아공
허창식/샌디허
남광우

* 새누리 교회가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선교지와 선교사 현황입니다.



금 **고현종** 담임목사
디사이플교회

토 **김우준** 담임목사
토랜스 조은교회

주일 **손경일** 담임목사
새누리교회

SAENURI
FAMILY
.COM

* 자세한 내용은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새누리교회
New Community Baptist Church

새누리교회 New Community Baptist Church
1250 W Middlefield Rd, Mountain View, CA 94043